

# 사회를 지키는 백신은 사랑의열매에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한 해  
3만 1천여 개 협력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4조 1항에 따른 배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복권기금 포함)

2021년 지원금액 **7,104억**

지원대상	이동/청소년 1,742억	노인 769억	장애인 423억	여성/다문화 401억	위기가정 1,726억	지역사회 1,917억	해외/북한/기타 126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3,566억	교육/지원 1,025억	주거/환경개선 556억	보건/의료 564억	심리/정서 305억	사회적응보강 723억	소통/참여확대 218억	문화역치매소 147억



2022  
**04**

## 자수성가의 아이콘에서 지역사회 나눔의 중심이 되다

할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주)더파크그룹 박용환 회장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 사회를 지키는 백신은 사랑의열매에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한 해  
3만 1천여 개 협력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4조 1항에 따른 배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특권기금 포함)

2021년 지원금액 **7,104억**

지원대상	이동/청소년 1,742억	노인 769억	장애인 423억	여성/다문화 401억	위기가정 1,726억	지역사회 1,917억	해외/북한/기타 126억	
사업분야	기초생활 3,566억	교육/지원 1,025억	주거/환경개선 556억	보건/의료 564억	심리/정서 305억	사회적응보강 723억	소통/참여 확대 218억	문화역치매소 147억

2022  
**04**



## 주택과 도시, 사람을 품다

주택도시·지역사회·  
나눔·지역발전의 주제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 사회를 지키는 백신은 사랑의열매에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한 해  
3만 1천여 개 협력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4조 1항에 따른 배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특권기금 포함)

2021년 지원금액 **7,104억**

지원대상	이동/청소년 1,742억	노인 769억	장애인 423억	여성/다문화 401억	위기가정 1,726억	지역사회 1,917억	해외/북한/기타 126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3,566억	교육/지원 1,025억	주거/환경개선 556억	보건/의료 564억	심리/정서 305억	사회적응복합화 723억	소통/참여확대 218억	문화역치매소 147억

#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80 2022 APRIL



2022  
**04**

기부문화를  
이끄는 차세대  
나눔 대표주자

청년 기부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는  
(주)구공 이정원 대표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02-398-9393

# 사회를 지키는 백신은 사랑의열매에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한 해  
3만 1천여 개 협력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4조 1항에 따른 배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특권기금 포함)

2021년 지원금액 **7,104억**

지원대상	이동/청소년 1,742억	노인 769억	장애인 423억	여성/다문화 401억	위기가정 1,726억	지역사회 1,917억	해외/북한/기타 126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3,566억	교육/지원 1,025억	주거/환경개선 556억	보건/의료 564억	심리/정서 305억	사회적응복합 723억	소통/참여확대 218억	문화역치매소 147억

2022  
**04**



## 태영전자(주) 김영수 회장과 가족들의 나눔 이야기

아들 부부까지 2대에 걸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해  
패밀리 아너로 거듭나다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accompanist\_s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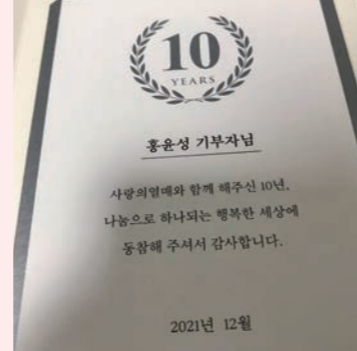
어제 책 사러 가면서 강원도에 난 산불 이야기를 하던 중 큰딸이 물었다. “엄마, 나 산불 난 곳에 기부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음... 하고 싶어? 하고 싶음 해야지.” “네, 하고 싶어요. 많이는 못 하고 용돈받은 것 중 5만 원 정도 하고 싶은데 그 정도도 도움이 될까요?” “작아도 도움이 될 거야~ 엄마가 방법을 알아볼게~” 집에 와서 찾아보니 직접 기부하는 게 있어서 #사랑의열매 중앙회에 오늘 기부를 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언니가 한다고 하니 작은딸도 한다고 해서 같이 기부를 했다. 큰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귀한 곳에 쓰여지길... 잘 컸다, 착하다 내 딸들♡ #기부 #초딩언니들의용돈기부 #울진산불기부 #강릉산불기부 #사랑의열매기부 #꼬깃꼬깃용돈기부 #초5반장언니 #초3언니 #선한영향력있는아이들로커주길

minjiqwe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산불 피해 주민들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사랑의열매 #산불기부

hongyunseong1004



개근상 이후 얼마 만인가? 소소한 행복. #천천히그리고오래도록 #사랑의열매 #이야기서른아홉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글·그림 오동진

다음 화에 계속...

###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accompanist\_s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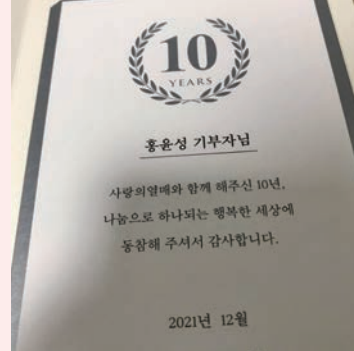
어제 책 사러 가면서 강원도에 난 산불 이야기를 하던 중 큰딸이 물었다. “엄마, 나 산불 난 곳에 기부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음... 하고 싶어? 하고 싶음 해야지.” “네, 하고 싶어요. 많이는 못 하고 용돈받은 것 중 5만 원 정도 하고 싶은데 그 정도도 도움이 될까요?” “작아도 도움이 될 거야~ 엄마가 방법을 알아볼게~” 집에 와서 찾아보니 직접 기부하는 게 있어서 #사랑의열매 중앙회에 오늘 기부를 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언니가 한다고 하니 작은딸도 한다고 해서 같이 기부를 했다. 큰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귀한 곳에 쓰여지길... 잘 컸다, 착하다 내 딸들♡ #기부 #초딩언니들의용돈기부 #울진산불기부 #강릉산불기부 #사랑의열매기부 #꼬깃꼬깃용돈기부 #초5반장언니 #초3언니 #선한영향력있는아이들로커주길

minjiqwe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산불 피해 주민들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사랑의열매 #산불기부

hongyunseong1004



개근상 이후 얼마 만인가? 소소한 행복. #천천히그리고오래도록 #사랑의열매 #이야기서른아홉

####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나눔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전제향



방송인 전제향님은 2013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기부는 물론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는 전제향님은 ‘나눔공모전’, ‘모두다토론회’, ‘희망나눔캠페인’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사랑의열매의 목소리가 되어주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80 2022. 04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이달의 표지

강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주)더파크그룹 박용환 회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4월 / 통권 180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04

### 긴급 구호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과 희망을 전합니다

## 06

### 모두의 나눔

장벽 없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 12

###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행복모아챌린저스’



## 16

### 내 인생의 한마디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 조용민

## 20

### 클라우드펀딩

요양보호사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펀딩 후기

## 21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강원·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



## 32

### 착한 열매술랭

코스를 완성하는 울산 맛집

## 36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공모전 상금으로 나눔리더 가입한

박재신 사회복지사

## 38

### 착한기업

나눔 골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 42

### 나눔 이슈

출범 3년 만에 200호 달성한

나눔명문기업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 사랑의열매

vol. 180 2022. 04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김환 차장,  
민주현 사원, 백경우 사원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4월 / 통권 180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 04

### 긴급 구호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과 희망을 전합니다

## 06

### 모두의 나눔

장벽 없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 12

###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행복모아챌린저스’

## 16

### 내 인생의 한마디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 조용민

## 20

### 클라우드펀딩

요양보호사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펀딩 후기

## 21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32

### 착한 열매술랭

코스를 완성하는 울산 맛집

## 36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공모전 상금으로 나눔리더 가입한

박재신 사회복지사

## 38

### 착한기업

나눔 골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 42

### 나눔 이슈

출범 3년 만에 200호 달성한

나눔명문기업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80 2022. 04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이달의 표지

20대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한  
청년 사업가 (주)구공 이정원 대표

## 04

### 긴급 구호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과 희망을 전합니다

## 06

### 모두의 나눔

장벽 없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 12

###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행복모아챌린저스'

## 16

### 내 인생의 한마디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 조용민

## 20

### 클라우드펀딩

요양보호사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펀딩 후기

## 21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남·세종·대전·충북

## 32

### 착한 열매슬랭

코스를 완성하는 울산 맛집

## 36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공모전 상금으로 나눔리더 가입한  
박재신 사회복지사

## 38

### 착한기업

나눔 골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 42

### 나눔 이슈

출범 3년 만에 200호 달성한  
나눔명문기업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4월 / 통권 180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80 2022. 04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이달의 표지

전남 사랑의열매 세 번째 패밀리 아너 가족인  
태영전자(주) 김영수 회장과 아들 김상설 대표이사,  
부인 왕미애 여사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4월 / 통권 180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 04

### 긴급 구호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과 희망을 전합니다

## 06

### 모두의 나눔

장벽 없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 12

###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행복모아챌린저스'

## 16

### 내 인생의 한마디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 조용민

## 20

### 클라우드펀딩

요양보호사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펀딩 후기

## 21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남·제주·광주·전북

## 32

### 착한 열매술랭

코스를 완성하는 울산 맛집

## 36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공모전 상금으로 나눔리더 가입한  
박재신 사회복지사

## 38

### 착한기업

나눔 골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 42

### 나눔 이슈

출범 3년 만에 200호 달성한  
나눔명문기업

## 44

###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46

### 전국 지회 뉴스

## 56

###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과 희망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가운데 국내외에서 비보가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누군가는 화마에 생활 터전을 잃어 슬픔에 빠져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명분 없는 전쟁이 불러온 참극에 고통받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이러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더욱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산불 피해 지역에 3억 원 긴급 지원

사랑의열매는 산불이 발생한 경북과 강원 등 피해 지역 구호를 위해 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화재로 인해 피해 주택 350여 채, 대피 주민 7,500여 명 발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산불 피해 3일 만에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한 것. 이번 긴급 지원은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경북 울진의 200여 세대 등 주택이 전소된 위기 가구에 생필품과 생계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3월 4일 강원·경북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크나큰 피해를 남겼다.



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빛을 밝혔다.



## 전국에서 보내온 희망의 불씨

사랑의열매는 3월 말까지 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을 전개했다. 이에 SK그룹·롯데그룹·하나금융그룹에서 각각 10억 원을, (주)에이스침대 안유수 회장이 3억 원을 기탁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방송인 전현무는 1억 원을 전달했다. 2019년 강원 산불 피해 지원, 2020년 코로나19 특별 모금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동방신기유노윤호와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이번 산불 피해 지역 구호를 위해 각각 5,000만 원, 1억 원을 기부했다. 두 사람은 이번 기부로 누적 기부금 1억 원을 넘기며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또 가수 임영웅이 1억 원,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에서 2억 6,000만 원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과 성숙한 팬덤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브레이브걸스 유정도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피해 구호에 동참했다. 그는 “브레이브걸스 공식 팬클럽 ‘피어레스’가 한 기부”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긴급 지원 및 특별 모금

사랑의열매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공습 등으로 많은 사망자와 피란민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8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사랑의열매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긴급 구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긴급 지원은 국제 구호 개발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3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을 전개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했다. ❀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어느 아이가 혼자 친척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본 후 엄마와 저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리나라의 한국전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얼마 안 되는 용돈이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전쟁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 초등학교 6학년생이 기부금과 함께 보내온 편지 중 일부 발췌

# 장벽 없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장애인이 마주해야 하는 사회 장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하다. 사랑의열매와 전국의 나눔 협력 기관들은 오늘도 그 장벽을 조금씩 허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언젠가는 다름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글: 이선희 사진: 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 KB 신입 장애 대학생 노트북 지원 사업

장애인 대학 입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 지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보조 기기는 수가 부족하고 노후화로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KB국민은행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009년부터 장애 대학생에게 노트북을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온라인 학습환경을 구축해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트북을 지원 받은 학생은 “화면이 커서 교수님 입 모양을 정확히 볼 수 있다”, “부모님 도움 없이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등 학업 능력과 자립심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1 노트북 전달식에서 선정 소감 및 활용 계획을 발표하는 새내기 대표 대학생(2021년)  
2 2009년부터 사업을 지원해온 KB국민은행  
3 새내기 대학생들이 참석한 노트북 전달식(2019년)



3



## 발달장애 이해를 위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0%는 초등학교 때와 입학·전학 시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고, 그중 자폐성 장애인은 67%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대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들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수출입은행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사업을 진행했다. 서울과 부산 지역의 비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고, 또래 친구로서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기본 행동과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한 맞춤형 교재 및 동영상을 제작해 비장애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1 비장애 학생을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 2 맞춤 교재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교육 모습 3 아이들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Mini Interview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곽희연 사회복지사

8개월간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총 25회 진행했으며, 초등학생 421명, 중학생 119명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인식 개선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현장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등 저학년 학생이 30~40분 수업으로 내용을 이해하기엔 교재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초등 학생 교재를 세분화해 학년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했으며, 저학년 교재와 애니메이션을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요? 기존 인식 개선 교육은 시각장애·청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주로 다뤘다면 저희는 발달장애, 그중에서도 자폐성 장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 어쩌면 이런 용어가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교재에는 최대한 자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성으로만 다름을 이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여자 중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학급에 장애 학생이 있을 경우 분리해서 비장애 학생들에게 자폐성 장애 교육을 진행합니다. 따로 장애 친구를 위한 수업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장애 특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들던 아이들이 "어, 그 친구 아냐?"라고 단번에 이해하더라고요. 교육 후 설문 조사를 하면 학생 상당수가 "그동안 장애 친구의 행동을 오해했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의열매와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이번 사업에 어떤 의미인가요? 지원이 있었기에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장애 인식 개선 강사에게 수업 후 보고서를 받아 간접적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했듯 교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편집이 필요한 동영상 자료 등 미흡한 점을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매뉴얼 제작 문을 열고 툭툭툭

포괄적 성교육은 삶에서 성과 관련한 모든 선택과 경험을 포괄하는 것으로, 성평등과 다양성에 기반해 성적 주체로서 실천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장애 아동·청소년이 부적절한 성 행동을 차단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성교육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애주기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립중앙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중 최초로 장애·비장애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나섰다. 2021년부터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되어 사춘기를 준비해야 하거나 사춘기의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포괄적 성교육 강사를 양성해 체계적인 성교육 모델 및 지원 체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1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매뉴얼 제작 강사 양성 워크숍  
2 포괄적 성교육 매뉴얼 제작 회의 모습



####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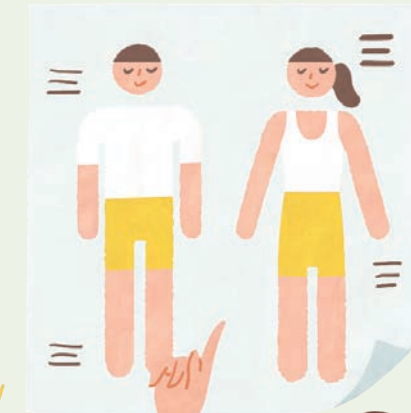


서울시립중앙청소년성문화센터 안지영

**현재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매뉴얼의 초안을 완성했고, 올해는 매뉴얼을 활용한 시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16회기의 발달장애인 성교육과 양육자 및 지도자 성교육 매뉴얼, 네 편의 동영상과 117컷의 그림 자료,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전·사후 검사 지까지 제작했습니다. 현재 시범 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그룹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한 점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의 성적 표현을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온 과거의 의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적 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방향성에서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나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다른 사람과 안전하며 즐겁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잘 누리기 위해선 사회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데, 이를 당사자 교육에만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사업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수업처럼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 및 지도자 교육을 최소 1회는 실시하도록 했고, 통합 성교육 매뉴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장애인 성교육은 단순히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문제 행동을 감소

시키는 목적으로만 다루기를 원하는 주변의 시선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나눔과꿈 지원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성적 표현을 이해하고, 성적 주체로 생활하도록 방안을 모색하며,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성을 담아 매뉴얼을 제작한 후 발달장애인 성교육 현장에 배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함께 소통해주고 계신 사랑의열매 담당자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행복모아챌린저스'

# “핸드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꿈을 꾸어요!”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출범하면서 올해 첫 리그 개막전을 기다리고 있는 '행복모아챌린저스' 선수들을 만나보았다. 장애를 넘어 핸드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선수들의 행복한 도전 이야기. 글 강은진 사진 서범세

### 가능성 보여준 행복모아챌린저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행복모아챌린저스'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충북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를 찾았다. 선수들은 코치진의 지도를 받으며 기본기와 스텝, 슈트 자세 등을 훈련하고 있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진지한 자세로 운동에 집중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과연 국내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의 가능성을 보여준 팀이었다. 행복모아챌린저스는 SK하이닉스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주)'의 직원으로 이뤄진 '행복모아' 핸드볼 동아리에서 시작했다. 핸드볼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 후 행복모아챌린저스 선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 비만이 개선되었고, 건강이 크게 향상된 것. 또 단체 종목의 특성상 협동이 필수인 만큼 소통 능력이 발달하고, 사회성도 높아졌다. 행복모아챌린저스 선수들의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SK하이닉스의 발달장애인 핸드볼 지원 사업의 동기가 됐다.

### 전문 기관 협업 통해 10개 팀 선발

지난해 11월, SK하이닉스는 청주시와 서원대학교, 충북 사랑의열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인 핸드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단위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를 출범시켰다. 서원대학교 장애인 스포츠지원센터는 SK하이닉스와 충북 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 발달장애인 핸드볼 참여 인프라 구축 • 발달장애인 핸드볼 훈련 매뉴얼 제작 • 전국 장애인 핸드볼 대회 활성화 • 스페셜올림픽 출전 • 발달장애인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핸드볼팀 육성 사업을 운영한다. 무엇보다 팀 선발에 앞서 발달장애인 사업 관련 750개 협력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리그 결성을 위해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 학교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팀 모집을 시작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지원 서류와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정규 연습 중인 행복모아챌린저스 선수들 모습. 올해 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있다.



1

현장 방문 심사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책임감 있게 장애인 핸드볼팀을 운영할 수 있는 10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SK하이닉스와 충북 사랑의열매, 서원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 기관이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남다른 신뢰감을 보여주며 현장의 반응이 뜨거웠다.

### 스페셜올림픽에서 꿈꾸는 <우생순>!

선발된 팀에는 교육 훈련, 전문 강사, 훈련용품 및 유니폼 등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3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경력이 단절된 은퇴 선수를 코치로 영입해 새로운 일자리에까지 창출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올해 첫 리그 개막전을 기다리고 있는 10개 팀의 발달장애인 선수들의 목표는 당연히 2023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는 스페셜올림픽이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체장애인이 참여하는 패럴림픽과 달리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으로 4년마다 개최한다. 핸드볼 하면 자연스럽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고 덴마크와 맞붙은 대한민국 선수들의 후환을 그린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떠오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발달장애인 핸드볼 강국도 덴마크다. 어쩌면 스페셜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2004년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발달장애인 선수에게 핸드볼은 진짜 세상과 소통하는 꿈의 운동이 되는 셈!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서 펼칠 최고의 순간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린다. 장애를 넘어 그들이 보여줄 <우생순>, 그 순간을 기다려보자. 🍀

1 13명의 선수로 구성된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행복모아챌린저스  
2 기본기와 스텝, 숏 자세 등 코치진에게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는 선수들  
3 코치진은 경력이 단절된 은퇴 선수를 영입해 의미를 더했다.



“연습할수록 동료들과 손발도 잘 맞고 소통이 잘돼요. 열심히 훈련해서 꼭 우승하고 싶어요!” - 김생수 선수



2



“처음에는 공이 무서웠지만, 참고 이겨냈어요. 친선 경기 때 볼을 막고는 정말 기뻐요!” - 폴키퍼 이학근 선수



3

### MINI INTERVIEW

#### “장애인 핸드볼 리그 활성화가 목표”



서원대학교 장애인스포츠지원센터 김정진 교수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8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10개 팀으로 2개 팀을 추가 선발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SK하이닉스라는 대기업과 대학, 그리고 사랑의열매까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니 부모님들이 좋아하셨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지원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특정 종목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또 운동을 통해 신체적·경제적 자립 역량을 꾀할 뿐 아니라 스페셜올림픽 출전이라는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국내 장애인 핸드볼 리그 활성화다. 10개 팀으로 출발하는데, 중도에 그만두는 팀 없이 건강하게 자립해 1, 2, 3기... 선수들이 계속 배출되길 희망한다. 또 일반 프로 선수들처럼 기업 후원도 받아서 기업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는다면 정말 좋겠다. 그게 진정한 ESG 경영이 아닐까.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 조용민

# “기부가 필수 잇템(it item)인 세상을 꿈꿉니다”

구글은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모인 집단이다. 구글러(구글에서 일하는 직원)인 조용민 아너는 그곳에서도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비비드한 생각과 행동으로 주변을 밝힌 그의 기부는 시작부터 달랐다. 글 강보라 사진 이승재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 없이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즐겁게 놀고, 뭔가 배우거나 쇼핑에 도움을 받는 분이 있기에 저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으로 받는 보너스는 그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조용민 아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부를 선택했다고 말한다.

“제 스스로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요. 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제 주변 조직도 성장해야 하고, 결국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건강해져야 가능한 일이지요. 저의 성장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기부를 선택한 것이죠.”

더 큰 성공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조용민 아너는 기부를 통해 ‘혼자 빨리 가기보다 여럿이 멀리 가기’를 선택했다.

## 우리 사회를 바꾸는 기부의 힘

아너 가입 1주년을 맞은 조용민 아너는 “아너가 된 이후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아너가 되고 나니 주변에 기부하는 분들의 활동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고등학생 눈에는 고등학생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요.(웃음) 매일유업에서 독거노인에게 우유를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런 활동에 대한 울림이 이전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인데, 그런 분들과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조용민 아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외에 생활 속의 자연스러운 기부 문화도 제안한다. 이름하여 ‘Random Act of Kindness’, 불특정 다수를 향해

조용민 아너는 등장부터 파격이었다. 릭오웬스 배기팬츠에 무심한 듯 걸친 티셔츠 위 아너 배지. 처음 보는 신선한 조합이었다. 창의성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연결할 때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 연결의 중심에 조용민 아너가 있다.

## 이타적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은 <UNBOUND(언바운드)> 출간에서 시작했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집필한 책이기에 인세 전액을 미혼모와 장애 어린이를 지원하는 데 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언바운드> 인세에 조용민 아너의 개인 보너스와 강연료를 더해 마련한 것이다.

“일상의 빈번하고 작은 행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어요. 제 기부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 더 미소 지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뤄지는 친절한 행동을 말한다.  
 “미국에서 한 고객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하며 뒤차 주문에 대해서도 결제를 했어요. 기분이 좋아진 뒤차의 운전자는 그 뒤 차량의 음식을 결제하고 그렇게 연속으로 247명이 대신 결제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친절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면 깜짝 선물 같은 일상이 펼쳐질 수 있다. 조용민 아너는 일상의 친절을 위해 납산터널 통행료를 지불할 때 1만 원을 내며 “제 뒤에 오는 차 네 대 더 계산할게요”라고 호기를 부린 다며 웃었다.  
 “이런 나눔이 생활 속에 배어 있으면 누군가를 돕는 일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 힘하고 팬시한 기부 문화를 꿈꾼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미덕으로 알고 지냈다.  
 “2022년에 입에 담기에는 깜짝 놀랄 만큼 예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욕을 먹어도 좋으니 강하게 표현해주세요.(웃음)”  
 조용민 아너는 이런 미덕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산불 피해 복구로 1억 원을 기부한 전현무 아나운서가 기안84 작가와 나눈 이야기에서 해답을 찾는다. 기부 소식을 본인 SNS에 올린 전현무 아나운서에게 기안84 작가가 “진짜 멋있으려면 아무도 몰래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놀린 것이다.  
 “그때 전현무 아나운서가 ‘아무도 모르는 건 하지 않는다. 한 명이라도 더 알아야 한다고 재치 있게 응수했죠.(웃음) 저는 그게 요즘 애티튜드에 맞다고 생각해요. 놀리던 기안84 작가도 결국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전염되듯 한다’며 공감하게 됐지요.”  
 거룩하고 숨은 선행으로 여기는 기부 행위가 이제는 ‘쿨하고 팬시한 느낌’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쿨한 기부가 계속되면 성공을 위한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 have item)’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죠.”  
**사랑의열매와 컬래버레이션 어때요?**  
 조용민 아너는 기부 산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대의 주축이 되는 MZ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인 알파 세대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는 기부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성원이 잘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설명과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기부는 아름다운 것

— 조용민 아너는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인연을 더 많은 구글러와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입니다!”라는 말로는 Z세대나 알파 세대를 설득할 수 없어요. 이들에게는 실리적으로 다가가야죠. 나의 기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제적인 ‘기부 효능감’을 느끼면 기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산업과 이루어지는 컬래버레이션이다.  
 “사랑의열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젊고 팬시하게 만드는 거죠. 생활 속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만들고요. 배달의민족 앱을 이용할 때 배달비에 기부를

더할 수도 있고, Z세대와 알파 세대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와의 과감한 협업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런 컬래버레이션은 사랑의열매를 보다 젊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조용민 아너의 머릿속에서는 나눔에 대한 언바운드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힘찬 것이 기부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색다른 그의 나눔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빛나게 할지 기대된다.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총천연색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 같다. ♡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지난해 진행한 요양보호사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펀딩 후기를 준비했다.

클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모아주신 정성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총 67분의 기부자가 펀딩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사랑의열매 매칭금을 포함해 총 270만 원을 모금했고, 18분의 요양보호사를 위한 3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클라우드펀딩 후기를 전합니다 “힘들었던 제 마음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밀착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요양보호사는 폭언과 성추행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큰 데다 코로나19 감염 불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치유 활동가 집단 사단법인 공감인과 함께 요양보호사를 위한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속마음산책'을 진행했습니다. 요양보호사(화자)와 공감자가 숲속을 거닐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답니다. 요양보호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신 펀딩 기부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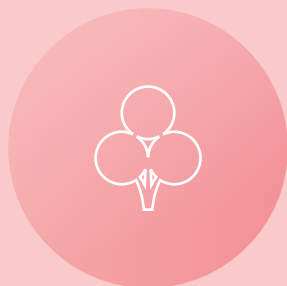
“산책하면서 저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갖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참여자(화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분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심리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사회복지사 참여자(공감자)

# 4월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 강원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더파크복지재단 설립한  
(주)더파크그룹 박용환 회장

## “할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나눔을 실천합니다”



2004년에 설립한 (주)더파크그룹은 아우디공식딜러 (주)한서모터스와 포드링컨공식딜러 (주)더파크모터스를 비롯해 11개 계열사로 이뤄진 강원도 원주 향토 기업이다. (주)더파크그룹의 박용환 회장은 사업마다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며 지역사회에서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또한 나눔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 인물이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첫 나눔 시작

(주)더파크그룹은 원주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관설동에 자리한다. 박용환 회장은 “개천 옆에 있는 수입차 전시장은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실제로 정겨운 시골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세련된 (주)더파크그룹 건물이 조금은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수입 자동차 본사를 설득해 원주 도심에서 이곳으로 이전한 건 모두 박 회장의 뜻이었다.

“이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집도 바로 뒤에 있고요. 여기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19년 정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박용환 회장은 어릴 때부터 사실상 할머니 손에 자랐다. 할머니는 27년 동안 녀 녀지 않은 살림에도 장손인 그를 자식보다 귀하게 키워주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해인 2003년부터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경로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박 회장은 스물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의 표현에 따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다.

“살아생전에 생신 잔치를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신상을 차려드린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했지요. 어린 나이니까 베풀어서 뿌듯하고 보람 있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츰 어른이 되면서 (돈을 벌면) 같이 나누고 써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이제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 투명하게, 제대로 잘 나누는 것

박용환 회장은 2008년 강원 사랑의열매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은 물론, 나눔명문기업에도 가입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예전에는 ‘알아서 잘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역 내 복지 단체에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제 의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도 많았어요. 이에 반해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후원 내역을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에 박용환 회장은 2018년 임직원의 연봉 1%를 적립해 기금을 조성해 사회에 환원하는 더파크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 재단을 통해 취약 계층 생필품 및 난방비 지원, 소외 계층 학생 장학금·교복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동네에는 아직도 대중목욕탕이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집터에 동네 어르신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짓는 게 목표입니다. 아마도 그게 저희 복지재단 1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환 회장의 집무실에 들어서면 유리창 너머로 정겨운 고향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익숙한 풍경 사이로 그리운 할머니 모습이 떠오르며 다시 한번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다고. 그래서 박 회장은 이곳에 (주)더파크그룹을 이전했으리라는 확신이 든다. 평생 올바르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

분과위원회·평가지원단 운영하는 서울 사랑의열매

##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요!”

서울 사랑의열매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 각층의 전문가를 모았다. 글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올해 2월에 진행된 배분사업 평가 실무교육에 참석한 평가지원단

### 한자리에 모인 분야별 전문가

서울 사랑의열매는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실행위원회와 배분사업평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언론·경제·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지원단은 정기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문 지식을

을 나눈다. 먼저 기획홍보, 모금, 배분분과로 나누어진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들은 주요사업 심의 및 의사결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한다. 이는 서울 사랑의열매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웃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 실무 경력자로 구성된 배분사업평가지원단의 활약도 돋보인다. 기부자의 소중한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이다. 현장 경험을 토대로 사업 평가 및 회계 평가를 통해 배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심사하고 평가한다. 또 사업수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 사랑의열매의 이 같은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

2022년 제차 모금분과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 배우 한효주, 생일 맞아 아름다운 기부 실천해

2022년 2월 22일, 자신의 생일에 맞춰 기부한 배우 한효주의 아름다운 나눔 소식이다.

글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 아너 소사이어티 고액 기부에 동참

배우 한효주가 아름다운 나눔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2월 22일, 자신의 생일에 맞춰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것. 한효주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곳에 꾸준히 기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왔다. 이번 기부에 앞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 원을 기부하고, tvN <서울춘봄> 출연료 전액을 고향 청주의 새생명지원센터에 후원했다. 또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2,000만 원을 기부하고, 팬미팅 티켓 수익금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환아복지원 프로젝트에 후원하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아름다운재단에 '효주 기금'을 개설, 어르신 생계비 지원과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사업 등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효주의 뜻에 따라 소외된 이웃의 기초 생계와 교육 자립, 그리고 영양 및 급식 지원뿐 아니라 정보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 사랑의열매와 나눔의 동행을 시작한 배우 한효주다. ♡



이웃사랑 성금 전달한 오렌지투스 영종 골프클럽

#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을 전해주세요!”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오렌지투스 영종 골프클럽이  
훈훈한 나눔 소식을 전해왔다.

글 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 나눔문화 확산에 힘 보탬 것

지난 2월 22일, 오렌지투스 영종 골프 클럽은 인천 사랑의열매에 3,280만 원을 기부했다. 오렌지투스 영종 골프 클럽하우스에서 진행한 성금 전달식에는 인천광역시 조택상 균형발전정부부시장, 오렌지투스 영종 골프클럽 김기열 대표이사,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김기열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소중한 기부금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오렌지투스 영종 골프클럽의 이번 성금



(왼쪽부터) 인천광역시 조택상 균형발전정부부시장, 오렌지투스 영종 골프클럽 김기열 대표이사,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은 인천시 관내 취약 계층의 돌봄과 함께 오렌지투스 영종 골프클럽이 위치한 중구 지역 소외 계층의 돌봄과 장학 사업, 화재 피해 예방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영종도에 위치한 오렌지투스 골프 클럽은 정규 18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2021년 6월 문을 연 이래 많은 골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착한시장 선포식 가진 소래포구 영남어시장

#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착한시장 될 터”

인천에서 세 번째 착한시장이 탄생했다. 남동구 소래포구의 영남어시장이 그 주인공이다.

글 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 세 번째 착한시장 탄생

인천에서 세 번째 착한시장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남동구 소래포구에 위치한 ‘영남어시장’! 2019년 미추홀구 ‘신기문 화관광시장’, 남동구 ‘인천모래내전통시장’에 이어 3년 만이다. 지난 2월 21일, 영남어시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시

— 착한시장 가입식에 참석한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인천상회 박향순 대표, 영남어시장 박장복 상인회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상인회장,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착한가게 대표들(왼쪽 두 번째부터)

장’ 선포식을 열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선포식에는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을 비롯해 이강호 남동구청장, 영남어시장 박장복 상인회장, 변완수 논현동장, 홍순삼 논현2동장, 박종철 논현교간동장, 신민호 남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 논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응천 위원장, 착한가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장복 상인회장은 “불황 속에서도 착한가게에 가입해준 상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며, “지역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무척 어려운데, 착한시장을 선포해 더 의미가 깊다”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결실을 맺도록 잘 배분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착한시장은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가게가 모인 시장으로, 영남어시장은 입점 가게 32곳이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했다. 🍀

**착한가게 가입 문의**  
☎ 032-456-3320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이어 나눔명문기업까지

# 큰 나눔으로 감동 전하는 (주)서호에코탑 손경희 대표

손경희 대표의 이웃사랑이 화제다. 아너 소사이어티와 나눔명문기업에 연달아 가입하며 큰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글강은진 사진 경기사랑의열매

경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 명패 앞에서 손녀에게 나눔의 의미를 설명하는 손경희 아너



## 나눔, 내 인생의 버킷 리스트

(주)서호에코탑 손경희 대표가 우리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아너 소사이어티와 나눔명문기업에 연달아 가입하며 큰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월 20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손경희 대표의 아너 가입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손 대표는 281번째 경기 아너에 이름을 올렸으며, 사업체가 위치한 평택 시에서는 10번째 회원이 되었다. 손주들과 함께 가입식에 참석한 손경희 대표는 “손주들에게 나눔의 참의미를 알려주고 싶었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오랫동안 다양한 복지시설에 정기 기부로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 내 목욕·빈찬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했을 뿐 아니라, 따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을 정도로 남다른 이웃사랑을 보여줬다. 나눔이 인생의 버킷 리스트라고 할 정도. 손경희 대표의 이번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 좋은 공동체 위해 힘 보탬 것

손경희 대표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의 1억 원 이상 고액 법인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의 가입도 이어갔다. 이로써 (재)서호추모공원은 경기 20번째 나눔명문기업이 됐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추모공원으로, 그동안 공원 내 자판기 수익금을 관내 복지사업에 기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가입식에서 손 대표는 “나눔을 통해 기

업의 가치와 행복이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은 “개인 및 기업 기부를 통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주셨다”면서, “나눔의 파트너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콘크리트 타일과 벽돌, 블록 등을 생산하는 (주)서호에코탑은 평택에 자리한 중견기업으로 (재)서호추모공원 등을 운영한다. ❀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웃들과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본보기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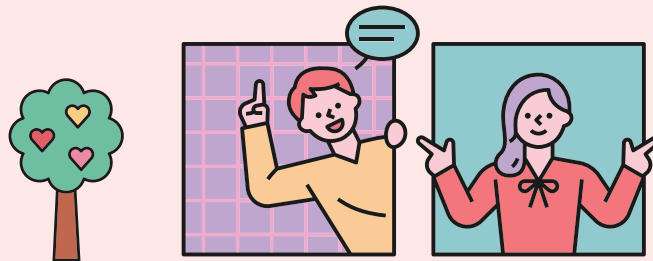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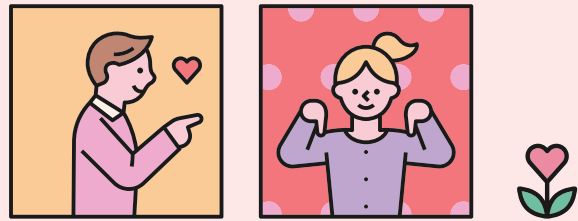
- 손경희 대표

- 1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에 참석한 손경희 아너와 가족(남편, 딸, 손주)
- 2 (재)서호추모공원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모습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KSD나눔재단 마음이음  
공모 사업 온라인 성과보고회 개최

# “제도권 밖의 이웃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해”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KSD나눔재단  
마음이음 공모 사업.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글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 지원의 사각지대를 주목해

지난 2월 17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KSD나눔재단 마음이음 공모 사업' 성과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주관한 보고회는 KSD나눔재단 관계자와 2021년 마음이음 공모 사업 수행 기관인 꿈다락, 늘푸름, 더굿세이브 부산지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라하프, 한림화상재단,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행복팩토리 사업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사회 환원을 위해 설립한 KSD나눔재단은 2019년부터 '마음이음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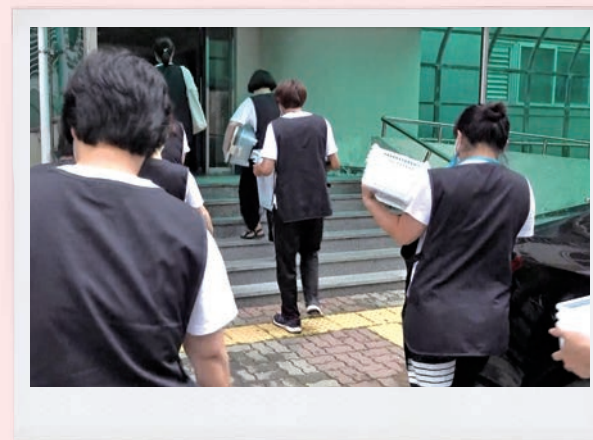
정신장애인 고용 모델 개발을 위한  
식물 매개 활동가 양성 사업 모습



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지원해주는 전국 단위 공모 사업으로,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제도권 밖의 이웃 201명이 취업, 자격증 취득, 대학 입학,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사업 시행 3년 차, 201명 자립 도와

KSD나눔재단은 마음이음 사업을 통해 2019년 제도권에서 소외된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사회정착과 자립지원을 도왔다. 발달장애인 관광해설사 양성,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등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해 지난 3년간 5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19년 쉼터 퇴소 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은 매년 1억 원의 도비 지원을 확보해 보호종료청년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2020년 부송종합복지관은 정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로 17명의 정리 수납 전문가를 양성, 이듬해 임대 단지 내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세대의 정리 수납을 지원하는 사업을 론칭해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특히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쉼터 청년, 화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주목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SD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제도권 밖의 이웃을 돕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



17명의 정신장애인 정리 수납 전문가를  
양성, 이듬해 임대 단지 내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세대의 정리 수납을 지원하는  
사업을 론칭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제도권 밖 이웃과 함께해요!”

### KSD나눔재단 마음이음 공모 사업 지원 LIST

-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사회 정착 지원 사업
- 경계성 장애를 가진 쉼터 퇴소 청년 자립 사업
- 보호종료아동·청소년 및 청년 맞춤형 반려동물 핵심 인력 양성 사업
- 정신장애인 고용 모델 개발을 위한 식물 매개 활동가 양성 사업
- 정신장애인 일자리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리 수납 전문가 양성 사업
- 놀이터 방임 아동 돌봄 사업
- 포스트코로나 대비 발달장애 문화 예술 온라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발달장애인 예술 강사 일자리 연계 사업
- 화상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연계 사업
- 발달장애인 관광해설사
-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커피트레인 연계형 일자리 연계 사업



4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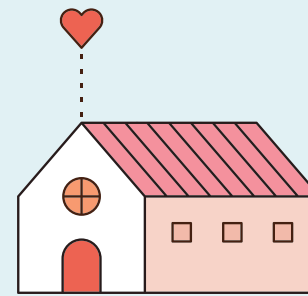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세상과 사람을 품는 따뜻한 사회 공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 융화를 위한 사회 공헌 전략 체계를 구축했다. 주거 복지 증진 및 도시 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사의 특성과 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접목한 것, 바람직한 사회 공헌 활동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받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나눔 이야기를 담았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부산사랑의열매



“‘주택 도시, 지역 사회, 나눔, 지역 발전’이라는 테마로 추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회 공헌 활동”

###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 복지 증진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 및 정책 사업을 수행하며 주택도시보증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통해 경영 혁신을 이루고, 한발 앞선 주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이끌어가는 공기업이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사회 공헌 활동 역시 주택 도시, 지역 사회, 나눔, 지역 발전 네 가지 주제로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임차자금 지원 사업,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기부계단 조성 사업,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월동 난방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기관이 지닌 역량에 집중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구도심 환경 개선 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 외에도 임직원이 함께하는 저소득 가정 멘토링 ‘허그 투게더’, 공부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장학금 지원 등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어려운 시기에 더욱 따뜻해지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부산 사랑의열매와 본격적인 나눔 인연을 맺었다. 매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컸던 2020년에는 총 19억 4,000만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억 원 이상 증액한 것. 덕분에 코로나19 긴급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경력 보유 여성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모금에도 부산 사랑의열매에 2억 원을 전달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탰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전국 사회복지 기관 49개소에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고, 부산 시내 사회복지 기관 18개소에 차량을 지원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도 살뜰히 챙기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장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들의 따뜻한 나눔 행보의 귀추가 주목된다. 🍀



사회복지 기관 차량 지원 전달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왼쪽)과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200호 아너 회원이 된 미광전업(주) 박무근 대표이사

# 오랜 선행이 만들어낸 조용하지만 큰 울림

2010년 12월 대구의 첫 아너 회원이 탄생한 지 11년 3개월 만에 200호 시대가 열렸다. 200호 영광의 얼굴은 미광전업(주) 박무근 대표이사로, 아내 김수금 여사와 나란히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특별한 부부 회원이 되었다.

글 이선희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성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에게 잘 전달해주기를 바랍니다.”

- 아너 가입식에서 미광전업(주) 대표이사 박무근·김수금 부부

(왼쪽부터) 대구 사랑의열매 손원조 부회장, 미광전업(주) 김수금·박무근 대표이사, 권영진 대구시장



## 200호를 더 빛나게 하는 아너 회원

지난 2월 22일 미광전업(주) 대표이사 박무근·김수금 부부가 아너 소사이어티 200·202호로 가입했다. 대구 사랑의열매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200호 회원이 드디어 탄생한 순간이었다.

가입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 사랑의열매 손원조 부회장 등이 참석해 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지역사회를 대표해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무근 대표는 2009년부터 대구 사랑의열매에 연말마다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왔다. 이미 개인 기부만으로 12억 5,000여만 원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나눔을 이어왔지만, 그간 아너 가입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고인이 된 아버지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자 2019년에 고향이 소재한 경북 사랑의열매에 1억 원

을 전달하며 아버지 故 박태조 님의 이름을 아너 소사이어티에 올렸다. 이후에도 박 대표는 기부를 이어왔지만, 본인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조용하게 실천해왔다. 하지만 더 밝고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들려면 많은 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긴 고민 끝에 아너 가입을 결심한 것. 지역사회에서 유독 따뜻하고 큰 박수를 보낸 이유였다.

## 21개 통장에 쌓인 마음

박무근 대표는 1979년 설립한 미광전업사를 상합(相合), 조화(造和), 상생(相生), 즉 '나누고 도우며 다 함께 살아가다'는 사훈 아래 미광전업(주)으로 발전시켰다. 아직도 주위에선 박 대표를 성공한 기업인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나눔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보낸 덕에 근검절약을 생활화한 그는 쓰고 싶은 돈을 아끼고 모아 2001년 기부를 위한 통장을 개설했다. 기부 금액을 고심한 끝에 전 직원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통장에 매월 차곡차곡 기부금을 모았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남몰래 전하고, 다시 통장에 기부금을 모으는 선행을 벌써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체한 통장만 21개에 달하고, 매월 100여만 원에서 시작한 기부금은 현재 700만 원까지 증액되는 등 그의 나눔은 나날이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까지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박무근 대표. 대구 사랑의열매가 11년간 기다려온 200호 아너 회원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가 있을까 싶다. 🍀

지역사회 구석구석 전하는 온기

#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임직원들의 참 따뜻한 마음

SK이노베이션은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omplex, 이하 울산CLX)가 지역사회에 전하는 마음이 유난히 따뜻하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사랑의열매

함월노인복지관에 난방비를 전달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임직원들



## 겨울 끝자락까지 따뜻하시길

지난 2월 15일 울산CLX 임직원은 저소득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함월노인복지관에 난방비 1,4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SK이노베이션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및 구성원 일동, 울산 사랑의열매 강학봉 전 사무처장, 함월노인복지관 오기호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울산CLX 임직원의 급여 1%를 모아 조성한 SK 1% 행복나눔기금에서 지원받은 이번 난방비는 어르신들이 겨울 마지막까지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더했다. 전달식에서 SK이노베이션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및 구성원 일동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동시에 한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드리고,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SK 구성원이 마음과 정성을 모았다”면서 “노사 임직원의 소중한 성금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이웃의 행복을 위한 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1%로 만드는 지역사회의 변화

지난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노사 합의를 통해 지역사회와 나누는 SK 1% 행복나눔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59억여 원을 모금했고, 올해는 15억여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1% 행복나눔기금 재원을 활용해 울

“노사 임직원의 소중한 성금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이웃의 행복을 위한 공헌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SK이노베이션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및 구성원 일동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

산 사랑의열매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이웃사랑 성금 17억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해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한다. 난치병 및 소아암 아동 치료비, 저소득 장애인 세대 긴급 지원, 학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위기 모자 가정 지원, 독거노인 생

필품 지원, 발달장애 아동 사회 적응 훈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금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긴급지원 사업에도 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울산CLX는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 등을 전개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쉽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삼성전자 스마트시티에 설치된 나눔 키오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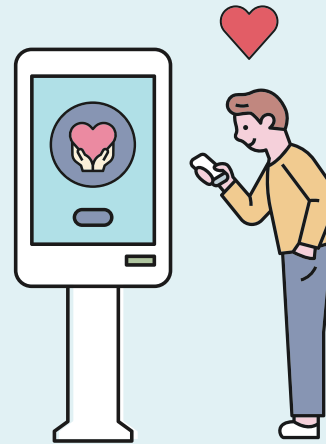
경북 구미 삼성전자 스마트시티의 나눔 키오스크 기부

# 우리 아이를 위한 작지만 큰 천 원의 기적

삼성전자 스마트시티(구미사업장)에서는 임직원이 '삼성전자 나눔 키오스크'를 통해 새로운 일상 속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경북 사랑의열매와 손잡고 나눔 키오스크 기부금을 보다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로 해 벌써부터 임직원의 반응이 뜨겁다. 글 이선희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삼성전자

## 사원중만 찍으면 임직원 누구나 기부 가능

경북 구미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내에는 사원증을 태깅하면 1회 1,000원씩 기부되는 삼성전자 나눔 키오스크(이하 나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사랑의 나눔로드'라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모금 사업으로, 경북 도내 위기 가정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임직원이 함께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내 캠퍼스를 오가는 많은 직원들이 나눔 키오스크 기부에 적극 참여하며 일상 속 나눔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의 사연을 담은 글과 동영상을 키오스크에 게시해 기부금을 누구에게 지원하는지, 향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상세히 알고 있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 기업 또한 1년에 한 번 나눔 키오스크에 가장 많이 참여한 직원을 수상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나눔 열기

지난 2월 14일 경상북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경북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 스마트시티는 삼성전자 나눔 키오스크 성금 1억 원 상당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번 전달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 사랑의열매 전우현 회장,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김현도 구미지원센터장,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자 뜻을 모았다. 나눔 키오스크를 통해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임직원이 기부금을 모으면 매달 경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굿네이버스 경북서부 지부에 지원되는 방식이다. 당초 매월 700만~1,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12월까지 1억 원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첫 달 기부금이 1,000만 원을 넘는 등 예상보다 뜨거운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임직원의 나눔 열정에 경북 사랑의열매도 놀랐다는 후문. 올 한 해 동안 이들의 작지만 큰 1,000원이 모여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임직원은 경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나눔 키오스크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 기금 경남 1호

# 길옥장학회의 첫 장학금 수여하던 날

지난 2022년 2월 7일 (주)현대정밀 교육장에서 길옥장학회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경남 사랑의열매에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 기금 30억 이상 기부를 약정한 지 꼭 2년 만이다. 또한 (주)현대정밀의 오춘길 회장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날이었다.

글 이선희 사진 경남 사랑의열매

길옥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함께 사진 촬영한 (주)현대정밀 오춘길 회장(가운데)



오춘길 회장과 그의 가족이 함께한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 기금 협약식

오정석 사장,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 외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첫 장학금은 경남 도내 예비 대학생 20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전달했다. 장학증서와 꽃다발을 받은 예비 대학생들을 대표해 오 회장의 모교인 마산공고 장학생이 감사인사를 전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이에 오춘길 회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 주길 바란다”며 당부를 건넸고,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은 길옥장학회를 통해 대학 진학이라는 기대와 꿈을 이룬 학생들을 축하하며, “기부를 통해 많은 후배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첫 수여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길옥장학기금을 통해 40여 년간 장학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길옥장학회가 우리 사회의 우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

### 어렵게 공부하는 마음을 알기에

(주)현대정밀 오춘길 회장은 어린 시절 가난한 탓에 야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일을 해 번 돈으로 친구들보다 1년 늦게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후 (주)현대정밀을 창업해 40여 년 만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장학재단이나 사학 설립의 뜻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 회장은 별도의 재단 설립 없이 재단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사랑의열매의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 기금 기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이에 2020년 1월 31일 오 회장은 30억 이상 기부를 약정하며 전국 8호이자 경남 1호로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 기금에 가입했다. 기금명은 오춘길 회장과 배우자 강여옥 여사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주)현대정밀 길옥(吉玉)장학기금으로 정했으며, 아동·청소년

년의 장학금 지원과 사회복지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길

약정을 맺은 지 꼭 2년 되던 올해 2월 7일 마침내 길옥장학회의 첫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주)현대정밀 오춘길 회장,



2020년 경남 1호로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 기금에 가입한 (주)현대정밀 오춘길 회장(가운데)

4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남  
제주  
광주  
전북



전남 세 번째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태영전자(주) 김영수 회장 가족

## “이웃을 돌보는 일, 아들 내외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아들 내외까지 2대에 걸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전남 세 번째 패밀리 아너가 탄생했다. 바로 태영전자(주) 김영수 회장과 그 가족이다. 대를 잇는 그들의 특별한 나눔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 대를 잇는 특별한 나눔

전남 사랑의열매가 세 번째 패밀리 아너의 탄생을 알렷다. 그 주인공은 바로 태영전자(주) 김영수 회장 부부와 아들 내외 가족이다. 김영수 회장은 전남 14호, 장성 1호로 가족 중 가장 먼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 이후 아들 김상설 대표이사가 51호로 가입하며 2017년 전남 최초 부자(父子) 아너로 기록되기도 했다. 또 2019년에는 김 회장의 며느리 이다인 씨가 전남 81호 아너에 이름을 올리면서 아너·패밀리 아너에 동시 등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3월 김 회장의 아내인 왕미애 여사가 전남 108호에 이름을 올리면서 2대에 걸쳐 부부 아너와 패밀리 아너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완성했다.

“제 뒤를 이어 회사를 맡을 아들에게 나눔을 먼저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베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경영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 내외부터 가입하고, 마지막으로 집사람이 가입을 했죠.”

김영수 회장은 자신의 나눔을 응원하고, 또 동참해준 가족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다.

### 지역사회를 돌봐온 회장님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태영전자(주)는 국내 자동차에 들어가는 압출성형 부품 생산업체로서 업계에서는 이미 그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우량 기업이다.

(왼쪽부터) 자리를 함께한 김영수 회장과 왕미애 여사, 아들 김상설 대표이사







— 지난해 3월 진행한  
왕미애 여사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 모습

PVC COMPOUND, 각종 전자 부품 및 차량(버스, 승용차) 내·외장재를 생산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미래 환경과 신기술 적용에 주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덕망도 높다. 지역 인력 채용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 복지재단에 정기적 후원과 함께 명절이면 취약 계층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이웃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김영수 회장이 있었다. “창업한 순간부터 지역의 복지시설들을 후원하면서 나눔을 시작했어요. 매출이 없을 때부터요. 그게 기업인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러니 이웃을 위하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웃음)” 김 회장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 왕미애 여사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평생 주변을 돌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저를 드러내는 게 싫어서 인터뷰 같은 것도 일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이제는 주변에 나눔을 알려 동참하게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전도 할 겸 처음으로 포지 요청도 수락했죠.” - 김영수 회장

보며, 도움을 주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남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냈다.

#### 이웃들 덕에 잘된 것

김영수 회장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과 후원하는 곳들의 기부금만큼은 한 번도 밀리거나 중단해본 적이 없다. 김 회장은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했다.

“IMF 외환 위기 때 매출이 반 토막 나고 한 달씩 공장이 쉬고 그랬어요. 그때도 직원 한 명 해고하지 않았고, 월급도 밀리지 않았으며, 후원하고 있는 곳들도 계속 도와요. 공장 전기세가 밀리고, 은행 이자를 못 내더라도요. 그건 저만 힘들면 되니까요.”

김영수 회장은 남을 도와서 망했던 소릴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된 것도, 자신의 도움을 받은 이웃들이 회장님 잘되게 해달라

고 기도해준 덕분이라면서 말이다. 이제 김 회장은 자신의 나눔을 아들이 잘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 묵묵히 견뎌준 아들에게 고마워

김영수 회장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현재는 아들 김상설 대표이사가 회

사 경영 전반을 맡고 있다. 김상설 대표이사는 지게차 운전부터 시작해 5톤 트럭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등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먼지를 뒤집어써가며 17년간 일을 배웠다.

“아버지가 워낙 바른길을 걸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늘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뒤를 따를 차례인데요, 더 잘하진 못해도 아버지만큼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옆에서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던 김상설 대표이사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왕미애 여사는 “사장 아들이라고 편하게 사무실 책상에서 시작하는 줄 알지만, 우리 아들은 먼지 밥 먹으며 시작했다”면서 긴 시간 묵묵히 견뎌준 아들이 대견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회장은 이제 회사의 나눔은 아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지역의 이웃을 돌볼 참이다. 가족의 나눔 이대를 잇고 잇길 바라면서 말이다. ♡



— 김영수 회장은 아들 김상설 대표이사가 자신의 뒤를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8년째 공병 판 돈 기부한 김정선·배연임 부부

# 오래도록 기억될 어느 노부부의 나눔

지난 2월 28일 김정선·배연임 부부가 제주 사랑의열매에 여덟 번째 기부금을 전달했다. 부부는 2015년부터 매년 공병 판 돈을 기부했지만, 그중에서도 올해의 나눔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기억될 듯하다. 글 이선희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아내 배연임 씨와 남편 김정선 씨, 제주 사랑의열매 심정미 사무처장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병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거주하는 김정선·배연임 부부의 고향은 본래 전라남도 해남이다. 1982년 제주에 들어온 이후 공사장 일과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왔다. 힘든 고비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부부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겠다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어느 날, 무작정 마트를 찾아가 아껴놓은 8만 원을 기부한 게 시작이었다. 누군가에는 한 번에 소비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이지만, 당시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부부에게는 큰 액수였다. 이듬해에는 10만원으로 기부금을 늘렸고, 이후 아내 배연임 씨의 제안으로 공병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하면서 차츰 나눔의 크기도 키워갔다. 공병 30개를 모아야 손에 들어오는 돈은 겨우 3,000원. 날이 갈수록 공병을 구하는 게 어려워져 그마저도 손에 쥐기 어렵다. 아내 배연임 씨는 다리 수술을 네 차례나 받으면서 거동하는 게 쉽지 않지만, 부부는 공병 모으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어가는 나눔 실천

올해 김정선·배연임 부부는 제주 사랑의열매에 123만 6,070원을 성금으로 기탁했다. 그동안 부부가 모아온 기부금은 공병을 모아 판 돈 외에도 하우스 일을 하면서 받은 품삯은 물론, 재난지원금까지 보탤었다. 그리고 올해는 아내 배연임 씨가 3년간 모은 저금통을 추가로 기부했다. 기부 활동에 솔선수범하던 아내

가 지난해부터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편 김정선 씨는 늦은 밤에 홀로 공병 수집에 나서며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월 28일 자택에서 진행된 성금 기탁식에서 남편 김정선 씨는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공병을 구하는 것이 힘들 때도 많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겨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부부가 8년간 이어온 나눔은 눈에 보이는 수치가 전부 아니다. 하루를 성실히 보낸 두 사람의 노고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어떻게 셈할 수 있느냐. 어려웠던 시절 부부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듯 이제는 우리가 김정선·배연임 부부의 나눔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공병을 구하는 것이 힘들 때도 많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 남편 김정선 씨



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제주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안전한 주거 환경과 지역 사회복지의 기준

# 기본에 충실한 사회 공헌 골드클래스(주)

골드클래스(주)는 2000년 박철홍 회장이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건설사다. 오늘날 건설한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 바탕에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경영 철학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사회 공헌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광주사랑의열매

광주 서구민 한가족을 위해 광주FC 청소년 시즌권을 기탁한 골드클래스(주)



##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나눔

최근 기업의 사회 공헌에도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골드클래스(주)의 사회 공헌은 담백하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그래서 골드클래스(주)의 나눔 활동을 살펴보면 우직한 신념이 느껴진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이웃이 늘어남에 따라 골드클래스(주)의 나눔도 늘어났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에 1억 원, 광주 서구민 한가족 나눔 후원금 1,000만 원, 광주 지역 취약 계층 장애인 이동 지원금 1,000만 원, 보성군 취약 계층 이웃사랑 성금 5,000만 원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지난 3월 15일에는 경북과 강원에 발생한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해 계열사인 보광종합건설(주)을

통해 1억 원을 전달하는 등 국가적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8개 장애인 단체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살뜰히 돌보고자 노력한다.



2021년에 진행한 지역 장애인 단체 후원금 전달식

##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기업인

골드클래스(주)의 전방위적 나눔 활동이 가능한 배경에는 박철홍 회장이 있었다. 박 회장은 평소에도 지역에서 성장한 만큼 주변의 힘이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사회 공헌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애정을 기반으로 광주 사랑의 열매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 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그는 약속한 기간보다 훨씬 앞당겨 1억 원의 성금을 완납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인을 넘어 법인 기부로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기탁하고 있다. 또 광주 사랑의열매 부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저변을 넓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중이다. 이런 박철홍 회장이 있기에 앞으로 골드클래스(주)의 나눔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

“평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 골드클래스(주) 박철홍 회장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어린이 기부자

# 아이들에게 배우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

“아이의 어른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때때로 어린이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나눔 또한 그렇다.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는 어른을 부끄럽게 만드는 큰 스승 같은 어린이 기부자들이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전북 사랑의열매



1



2

1 월명초등학교 4학년 김나형 기부자  
2 프라디움어린이집 원생들

##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월명초등학교 김나형 학생** 지난 3월 8일 초등학교 4학년인 김나형 학생이 저금통을 들고 전북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알뜰살뜰하게 모은 30만 2,000원을 우크라이나 피해민을 위한 특별 모금에 전달했다. 김나형 학생은 “전쟁 공포가 없는 세상에서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며 귀한 나눔을 실천했다. 기탁한 성금은 러시아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고사리손으로 만든 바자회 수익금 기부

**프라디움어린이집 원생**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프라디움어린이집은 지난해 연말 드라이브스루 바자회를 진행했다. 원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서는 총 7만 600원의 수익금이 마련됐다. 해당 수익금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기부해 전북 지역 나눔운동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탤다.

## 매년 축제 부스 수익금을 연탄으로 전달

**산북중학교 학생** 군산의 산북중학교 학생들은 매년 박민규 선생님을 따라 학교 축제 부스를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연탄으로 전달한다. 박민규 선생님은 “아이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마련한 수익금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한다고 했을 때 정말 뿌듯했다”며 “학생들도 자랑스럽지만 매년 모금 활동과 연탄 봉사 활동에 동참해주는 교직원과 지역 주민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 전북을 따뜻하게 만드는 ‘나눔’ 스승들

각각 아홉 살, 여섯 살이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용돈과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상금 등을 모아 기부하는 민준·채영 남매, 2012년부터 용돈을 모아 매월 기부하는 성현이 등 지면 관계상 미처 소개하지 못한 어린 기부자가 아직도 많다는 사실. 나눔 좋아하는 어린 ‘스승’들이 있기에 전북의 미래는 오늘보다 더 따뜻하지 않을까. ♡

“전쟁 공포가 없는 세상에서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우크라이나 특별 모금에 기부금을 전달한 김나형 학생



3

지난해 연말 축제 부스 수익금을 기부한 산북중학교 학생들

4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기부로 성장하는 차세대 청년 사업가, (주)구공 이정원 대표

## “나눔은 제게 주는 선물입니다”

스무 살에 첫 기부를 시작하며 목표는 하나였다. 서른이 되기 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것. 충남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란 영예로운 타이틀의 주인공, 청년 사업가 (주)구공 이정원 대표다.

글강은진 사진김기남, (주)구공 인스타그램(gugong\_1)

### 최연소 아너라는 영예로운 타이틀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사랑의열매> 표지로 만나는 이달의 주인공은 바로 청년 사업가 (주)구공 이정원 대표다. 2017년 12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충남 최연소 회원으로 이름을 올려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스물여덟 살에 불과했다.

“서른이 되기 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꼭 하고 싶었어요. 당시 제게 서른은 20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저의 20대를 기록하고 싶었지요. 그게 아너 소사이어티를 통한 기부였어요.”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이 오랜 목표였다고 말하는 이정원 대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나눔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주)구공 본사가 위치한 천안 지역의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 오랫동안 정기 후원을 이어왔을 뿐 아니

라, 매년 후원 물품도 기탁하고 있다. 또 회사에서 신규 카페를 오픈할 때마다 첫 달 수익금 전액 기부나 기념일에 맞춘 기부 등을 기획해 취약 계층 장애인과 어르신 보행 보조 기구 구입비, 가족이 없는 홀몸 어르신의 생신 축하 사업비 및 에어컨 구입비,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및 문화 활동비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복지 분야에 기부해왔다.

### 작지만 큰 걸음의 시작,

#### 3만 원의 정기 후원

이정원 대표는 갓 스무 살이 되던 해 처음 기부를 시작했다. 당시 휴대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한 어린이 국제 구호단체의 광고를 보고 3만 원을 정기 후원하면서였다.

“1만 원이나 3만 원이라는 소액이 어떤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에 시작했어요. 당시 제게도 적은 돈은 아니었



지만, 그 정도 아낀다고 제 삶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후원을 시작 하니 굉장히 뿌듯하고 왠지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나눔을 많이 권유한 기억이 나요.(웃음)

이정원 대표는 나누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게 기부 같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기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3만 원으로 시작한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절대 큰 금액만이 기부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기부에 대한 어떤 기준도, 부담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하든, 하다가 중간에 멈추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딱 한번, 경험을 해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어떤 곳에서 멋진 스파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정원 대표는 MZ세대답게 자신의 인스타그램(gugong\_)과 유튜브(이정원정이 일상) 등을 통해 기부 활동을 공유하고 동참을 이끌어낸다.

“저는 나눔을 통해 저의 성공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내 성공을 말해주는 나눔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주)구공은 휴대폰 유통 소매점 사업을 기본으로 카페 및 풀 빌라 창업과 운영, 공간 인테리어 건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다. 오늘의 이정원 대표만 본다면 이른바 금수저로 오해하기 쉽겠지만, (주)구공은 그가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 2,000만 원으로 스무세 살에 친구와 동업으로 시작해 일군 회사다. 이른바 요즘 드물다는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었을까.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정원 대표는 “지금 이 순간”이라며 웃었다.

“매 순간이 위기고 매 순간이 어려웠어요. 가게를 연달아 폐업한 적도 있고, 코로나19는 전혀 예상치 못했지요. 하지만 위기는 계속 오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부족한 능력은 성실로 메워가면서요.”

이정원 대표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대학은 한 학기만 다

니고, 집안 형편도 좋지 못했으며, 뚜렷한 목표도 없던 자신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낸 것처럼 모든 것에 의미를 두며 상처받지 말고 긍정적 방법을 찾아보라면서 말이다.

“5년 약정으로 아내에 가입하고 2년 만에 완납했어요. 이후엔 나눔명문기업에도 가입하고요. 저는 이렇게 나눔을 통

해 저의 성공을 느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기업인이라면 자신의 성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일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정원 대표다. 나눔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는 이정원 대표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짜 리더가 아닐까. ❀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탄탄한 실력을 발휘하는 (주)구공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주식회사 구공의 100호점 카페 '고목림' 전경

학교 밖 청소년 위해 혈액용 자가 진단 키트 지원,  
나눔리더 단체 가입도

# 엄마의 마음으로 나누는 온기, 세종여성기업인회

엄마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세하게 보살피는  
세종여성기업인회. 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는 이들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글 강은진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1 희망2022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한  
세종여성기업인회 회원들 2 희망2022나눔캠페인 기부 콜(CALL)  
나눔챌린지에 참여한 세종여성기업인회 이윤희 회장

## 1,000만 원 상당 자가 진단 키트 전달

지난 3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인회는 세종 시청을 찾아 1,000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 사랑의열매 홍영섭 회장, 이윤희 회장(주)바른기업 대표, 안옥선 부회장(주)세종일신 대표, 남궁백합 부회장(주)노블레스디자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종여성기업인회가 준비한 자가 진단 키트는 코로나 19와 가정 문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여성 기업인 대부분이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인 만큼 누구보다 청소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자가 진단 키트를 준비한 것. 키트에는 학업과 건강을 잘 챙겨 다시 학교로 돌아가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여성기업인회 이윤희 회장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모두 가까운 친구의 자녀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기획하고 싶다”고 말했다.

## 자가진단키트 기부에 참여한 세종여성기업인회 회원사

- |            |                |
|------------|----------------|
| • (주)세종일신  | • 세무법인 지산 세종점  |
| • 노블레스디자인  | • 농업법인 솔티마을(주) |
| • (주)테라하임  | • 디에스퍼니처       |
| • 노무법인 정음  | • (주)태연        |
| • 새움에듀컨설팅  | • (주)바른기업      |
| • 한국효소농업법인 |                |

## 솔선수범해 나눔리더 가입도

세종여성기업인의 선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20년부터 매년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하며 회원별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것. 2020년 세종 35호 이윤희 (주)바른기업 대표, 36호 남궁백합 (주)노블레스/노블레스디자인 대표가 단체로 가입하고, 이어 2021년 12월에는 71호 김은주 (주)디에스퍼니처 대표, 72호 선상희 숲건축사 대표, 73호 이은정 정음노무사 대표, 80호 김현경 (주)다울 S&H 대표가 단체로 가입했다. 그야말로 솔선수범을 통해 세종시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종여성기업인회는 세종시 여성의 창업과 기업 경영을 도와주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해 대내외 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엄마라는 장점을 살려 다양한 정기 봉사 활동도 구상 중이다. 이윤희 회장은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기업인으로 행복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세종시청에서 진행한 진단 키트 전달식





송진우 전 한화이글스 코치와 그를 응원하는 '행복회'의 나눔 이야기

# “나눔리더 단체 가입으로 다시 행복을 선물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청소년에게 매달 장학금을 지원해온 행복회 회원들. 이제 나눔리더 단체 가입으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가려 한다.

글강은진 사진대전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한 행복회 회원들



## 행복을 선물하는 행복회

송진우 전 한화이글스 코치와 그를 응원하는 친목회 '행복회'의 따뜻한 나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월 10일, 송 전 코치와 회원 9명 모두가 대전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한 것. 행복회는 한화이글스 레전드 투수로 손꼽히는 송진우 전 코치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송 전 코치를 포함 대전MBC 임세혁 기획사업부장, 반찬 프랜차이즈업체 이강진 대표, 건설·임대업체 이재호 대표, 대전조이약국 안강선 대표약사, 대전마음편한병원 백현철 전문의, 효안과의원 이호 원장, 성형외과 윤대영 원장, 미용 재료 회사 박재만 대표, 레저·스포츠업체 김정기 대표 등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송 전 코치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2009년부터 시작한 행복회는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지만, 지인의 소개로 고등학생 동생과 사는 대학생 가장을 돕기 시작하면서 나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 지역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고파

행복회와 대전 사랑의열매와의 인연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후원하던 대학생 가장의 졸업과 취업으로 지원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면서 행복회 회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나 운동 등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지역의 청소년을 돕고자 다시금 의기투합했다. 이후 대전 사랑의열매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매달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개인별 기부금을 증액해 회원 10명이 함께 나눔리더까지 가입하며 지역사회 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나눔리더 가입식에 참석한 행복회 회원들은 지금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학생들을 응원해 지역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는 이구동성 입을 모았다. 또 자신들의 나눔이 다른 많은 친목 단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면서 말이다. 우리 이웃들에게 진짜 행복을 선물하는 행복회 회원들이다. ❀



‘역대 최다승 투수’라는 명예로운 수식이 따라붙는 송진우 한화이글스 전 코치의 현역 시절 모습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입식에 참석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송진우 전 코치



— 착한가게 발굴에 앞장서 충북 최초 착한거리 지정 쾌거를 이룬 나눔봉사단과 행복나눔분과위원

지역 복지 발전의 전형을 보여주는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이 하나 되어 행복한 마을 만들어요!”

영동군 복지 발전의 중심에는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주민 모두가 잘 사는 영동군을 만들기 위한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남다른 열정을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충북 사랑의열매

“민관 협력을 통해 명품복지 영동을 실현,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

—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복지 발전 위한 15년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제다. 2007년 주민생활지원협의회로 시작한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년째 대표와 실무협의체 위원 및 분과위원, 11개 읍·면보장협의체 346명의 위원이 하나 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보건 복지 서비스,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최초로 개최한 ‘영동희망복지박람회’가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년간 70여 개 기관과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홍보·전시·체험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상당의 위치 추적 장치 스마트 시계인 배회감지기 58대를 영동경찰서에 지원해 치매 어르신과 사회적약자 등을 보호하면서 실종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명품 복지 위해 적극적 모금 활동도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 모두가 잘 사는 영동군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모금 활동도 병행했다. 2016년 충북 사랑의열매와 ‘레인보우 행복나눔 사업’을 통해 연합 모금 업무 협약식을 하고, 나눔봉사단도 결성한 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42개소가 착한가게에 가입, 충북 최초로 황간면이 착한거리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나눔리더 가입에도 앞장서 어르신 12호까지 탄생해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레인보우 행복나눔 사업을 확대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무려 6억 4,000여만 원을 모금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3,844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집수리 등 읍·면 특성에 맞춰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성금으로 위기 가구 447가구와 수혜 가구 421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행복나눔가게 100곳에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매년 11개 읍·면의 20~25개 특화 사업을 추진해 마을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명품 복지 영동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1 지난 6년간 영동군의 어려운 이웃 4,000여 명을 지원해온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박세복 영동군수의 나눔리더 가입식.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맛있게 시작해 멋지게 마무리하는 착한가게

## 코스를 완성하는 울산 맛집

봄꽃이 앞다뒀 꽃망울을  
터뜨리는 요즘, 착한가게로  
짧은 나들이를 해보자.  
맛있게 시작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완벽한  
코스, 울산이다.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 100년을 이어갈 노포의 명성 궁중삼계탕

📍 울산시 중구 먹자거리 6 ☎ 052-244-1156  
🕒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



해준다. 닭뚥집도 유명하다. 즉석에서 보글보글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작은 화로에 내주는데, 식전 인삼주와 잘 어울려 일부러 찾는 손님이 있을 정도.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변함없는 맛을 지켜온 궁중삼계탕의 명성 뒤에는 김인걸 대표의 노력이 숨어 있다. 매일 새벽 시장을 찾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 대표는 직접 고른 좋은 재료만 사용한다. 재료의 신선도가 맛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음식도 마음도 따뜻해

김인걸 대표는 청결도 매우 중요시해 틈만 나면 쓸고 닦는다. 반찬 하나도 뚜껑 없이 허투루 보관하거나 내는 법이 없다.

음식점의 기본은 위생에서 시작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주방부터 홀까지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날 정도! 이러한 정성은 단골도 대를 이어 이곳을 찾게 만드는 비결이다. 거기에 착한 마음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 궁중삼계탕은 전국 착한가게 2300호다. 2017년 가입해 현재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빨간색 궁중삼계탕 상호 아래 빨간 열매가 그려진 착한가게 현판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잘 어울린다.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해주는 궁중삼계탕의 음식과 나눔은 어딘가 닮아 있다. 이곳의 메뉴는 봄나들이의 시작으로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 반세기 전통의 맛

궁중삼계탕은 울산을 대표하는 노포 중 노포다. 1975년 문을 연 이래, 현재까지 47년 동안 삼계탕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것. 깊고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살코기, 입맛을 돋우는 곁들이 반찬에 향긋한 인삼주까지 그야말로 삼계탕으로 차린 완벽한 한 상의 정석을 보여준다. 이곳은 특히 깔끔한 육수가 일품이다. 신선한 닭고기와 채소를 기본으로 닭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게 비결! 거기에 곁들이 반찬이 기막히다. 갓 버무린 오이와 고추무침, 시원한 깍두기는 삼계탕을 마지막 한 숟갈까지 맛있게 똑딱 비우게



## 울산 제1호 민간 정원 지정 카페 온실리움

-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도동신리로 138
- ☎ 0507-1318-9959
- 🕒 매일 오전 11시~오후 9시(월요일 휴무)



### 싱그러운 가득한 햇플

입구에서부터 초록의 싱그러움이 물씬 풍긴다. 카페라기보다 식물원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규모다. 울산시 제1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된 온실 조경 카페 온실리움(Onsilium)이다. 따스함과 푸름을 담은 '온실'과 전시관을 의미하는 '리움(rium)'이 합쳐진 이름 온실리움은 3,300㎡ 규모 부지에 2층 본관 카페와 유리온실, 그리고 영국식 조경 기법과 전통 기법이 어우러진 야외 정원과 체험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워싱턴야자 및 각종 선인장 같은 아열대 수목을 비롯해 제주에서 자생하는 제주팽나무, 아그배나무, 제주참꽃 등 보존 가치 높은 국내 고령 수목, 유럽 정원에서 볼 수 있는 블루엔젤과 팜파스 그라스 및 기타 그라스류 등 총 180종 약 4,500주가 식재돼 있다. 옥상정원은 가지산, 신불산 등 영남 알프스 능선을 즐길 수 있는 전망이 펼쳐져 가장 유명한 민간 정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오직 온실리움을 방문하기 위해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올 정도.

### 정원, 시민을 위한 선물

모든 공간이 포토 존인 온실리움은 명덕조경(주) 이상철 대표의 작품이다. 평생 조경업계에 몸담아온 노하우를 살려 시민에게 사시사철 꽃과 나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온실리움은 이상철 대표가 준비한 일종의 선물인 셈.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 오픈과 동시에 착한가게에 가입하며 나눔도 시작했다.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착한 공간, 바로 온실리움이다. 그뿐 아니라 전문 바리스타가 만들어내는 커피는 물론, 수제 말차 크림을 올린 크림 라테, 최고급 발로나 초콜릿을 곁들인 초코 음료, 쫄득한 망고 위에

블루베리가 더해진 망고베리빙 스무디까지 맛은 물론 온실리움의 정원처럼 예쁜 담음새가 절로 인증샷을 부른다. 따듯한 봄날, 나들이를 근사하게 마무리해줄 온실리움으로 가보자. 인생 컷까지 한 장 욕심내보면서! 🍓

공모전 상금으로 나눔리더 가입한 박재신 사회복지사

# “재능 통해 기부하는 것, 이루고 싶은 버킷 리스트였죠!”



### 나눔의 꿈을 현실로

좋아하는 일을 통해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이보다 멋진 일이 있을까. 사진을 찍으며 늘 생각했다. 그 멋진 일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고, 평일엔 사회복지사로, 주말이나 휴일엔 여행 작가로 활동하는 박재신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다.

“사랑의열매 입사 후 ‘나눔리더’에 대해 알았어요. 제가 여행 작가로 활동하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금을 타서 나눔리더에 가입하고 싶다는 버킷리스트가 생겼죠.”

‘시니플’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신 사회복지사는 여행 인플루언서로 SNS상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다.

좋아하는 사진을 통해  
나눔의 꿈을 현실로 구현한  
사람! 공모전 상금으로  
나눔리더에 가입한 박재신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다.

글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박재신 인스타그램(@siniple)



1 노란 비니는 여행 작가 박재신의 트레이드마크다.  
2 제주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  
3 제주의 숨은 여행지를 찾아 나선 박재신 사회복지사



그의 인스타그램(@siniple)에는 아름다운 여행 사진이 가득하다. 이런 자신의 재능으로 박재신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제주 여행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상하며 나눔의 꿈을 이루었다. 마침 상금이 나눔리더 기부 금액과 같아 도전했다고 말하며 씩스럽게 웃는다.

### 그래도 난 사회복지사

박재신 사회복지사의 나눔리더 가입에 훈훈함을 더하는 소식이 이어졌다. 직원의 기부를 전해 들은 서울 사랑의열매 운영석 회장이 매칭 그랜트 기부를 통해 응원해 나섰고.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취지라며 동참

## “나눔도 사진도 다양한 사람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입사 전 복지관에서 사랑의열매 사업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사랑의열매 기부금을 어떻게 쓰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모금 기관인 사

랑의열매에 저도 기부를 했죠!”  
청소년을 돕고 싶어 사회복지사가 되었다는 박재신 사회복지사는 이번 기부금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정 기탁했다. 본업인 사회복지사도, 부업인 여행 작가도 모두 다양한 사람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하는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사회복지사 박재신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은 바로 사회복지사로 정년퇴직하는 거예요. 어디서 퇴직을 하든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의 사진만큼이나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는지. 🍀

인천 민간기업 중 성금 기부 1위 기록

# 첫 마음 그대로 '이웃사랑' 나이스 샷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는 '골프로 나누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개장부터 17년 동안 이어진 누적 성금이 95억 3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소외계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글강보라 사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스카이72는 러브오픈 2021 성금 전달식을 통해 모은 6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개장식부터 시작한 사랑과 나눔이 17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진 것이다.



국내 최초로 펫 골프 페스티벌을 개최해 골프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는 하늘코스(18홀)와 바다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 54홀)를 합한 72홀과 9홀의 드림툰스코스,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드림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골프장이다. 한 해 방문 골퍼만 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스카이72는 '골프에서 즐거움을 찾자'는 슬로건 아래 한국 골프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스포츠 본연의 즐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 골프 문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는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첫 마음을 간직하며 실천하겠다"고 말하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습관을 만들어가자"는 꿈을 밝혔다. 스카이72는 이를 위해 '행복한 나눔'으로 '행복한 변화'를 이끌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 공헌 3대 방향을 설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골프장 개장부터 시작한 나눔 출신원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골프장을 개장하고 처음으로 '스카이72 러브오픈 하늘천사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오픈 당시 화려한 개장 행사 대신 자선 기금을 조성하며 인천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다. 스카이72는 현재까지 17년째 장기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스카이72 러브오픈 2021 성금 전달식에서 6억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스카이72를 찾은 연 80만 명 골퍼와 임직원들이 온정을 모은 것이다. 이번 성금은 스카이72 하늘천사기금,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바다코스(오션, 클래식, 레이크) 전체 매출액, 캐디 및 임직원 기금, 그리고 스카이72 별도 추가 성금 등으로 조성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기부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성금 규모도 확대했다. 2020년에도 공동 모금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예년보다 2억 원을 더한 5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95억 3,000만 원의 누적 성금으로 인천 시내 민간 기업 중 가장 많은 성금을 기탁한 1위 기업으로 기록하고 있다.

온기를 선물하는 스카이72의 블랙 산타

매년 겨울이 되면 스카이72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은 자발적으로 '블랙 산타'가 되어 인천 지역 쪽방촌 주민에게 연탄을 전달한다. 매년 3,000장 이상의 연탄으로 이웃에게

1 블랙 산타가 되어 쪽방촌에 연탄을 나르는 스카이72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 2 최경주재단과 함께 골프 인재를 지원하며 대한민국 골프 스포츠의 미래를 후원한다. 3 일반 고객에게 오션 코스를 개방해 친환경 골프 코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에코소풍 4 인천 중구 지역 어린이들의 진로, 인성, 학습 등에 도움 주는 스카이72 꿈키움캠프의 활동 모습



온기를 전하는 것이다. 지난해 역시 인천 동구에 위치한 쪽방상당소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펼쳤다. 코로나19로 500만 원 상당의 연탄 교환증과 생필품 박스를 주민 대면 없이 상당소에 전달하며 약식으로 진행했다. 쪽방상당소는 스카이72를 대신해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 지역의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가꿈(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한편 사랑가꿈 사업은 지역 기업의 재정적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재능 나눔 활동으로 시행하는 범시민운동으로 도배장판 교체 및 단열 공사, 지붕 및 벽면 방수 공사, 창문·문짝 교체, 싱크대·화장실 수리 등 저소득 돌봄 사각지대 계층의 주거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카이72는 인천 지역에서의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나눔국민대상은 국민 복지 향상에 힘쓴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스카이72는 오랜 시간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아 물적 나눔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우리의 미래는 당신입니다”

나누며 사랑하며 함께 호흡하겠다는 처음 약속, 골프의 이름 아래 낮은 자로 숨 쉬겠다는 초심 그대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 골프 문화를 선도하는 나눔 트렌드센터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채석장으로 사용하고 버려진 나대지와 폐염전 위에 조성한 곳으로, 생태계를 복원한 대표적 골프장으로 꼽힌다. 친환경 골프장의 탄생을 위해 조성 당시부터 부지 내에 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 통로와 대규모 생태 연못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는 가물치, 고라니는 물론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 큰기러기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에코소풍'을 통해 코스 내 복원한 환경을 개방하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펫 골프 페스티벌'도 스카이72만의 파격적 프로그램이다. 펫 골프 페스티벌은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골프·레저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국내 최초로 기획한 이색 골프 라운드다. 참가자들은 티샷과 그린 플레이 시 지정된 고정 장치에 반려견 목줄을 연결한 후 골프를 치고, 페어웨이를 걸을 때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라운드할 수 있다. 골프 실력보다는 반려견과 함께한다는 행사 취지에 맞게 스코어에 연연하지 않고 지정된 그린에서만 성적을 확인해 시상한다. 특정 홀에서는 플레이어가 고정 장치에 연결한 반려견에게 "기다려" 명령을 내리고, 반려견이 홀 아웃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하는 미션도 주어져 경기에 재미를 더한다. 펫 골프의 수익금은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에 기탁해 유기견 구조 및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한다.

### 청소년의 내일을 위한 꿈나무 원정대

스카이72는 한국 남자골프의 선구자 최경주 선수가 운영하는 최경주재단 골프 꿈나무들의 연습 라운드를 지원한다. 여기에 재단의 자선 골프 대회 개최 후원도 함께 하고 있다. 재단의 골프 꿈나무들은 최경주 이사장의 지속적 멘토링과 함께 해외 동계 훈련, 하계 캠프 및 전인적 프로



그램 참가와 수준별 개인 연습, 대회 비용, 실전을 위한 정기 라운드, 골프용품 등을 지원받는다. 최경주재단에서는 지금까지 107명의 골프 꿈나무를 배출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하와 국내는 물론 유럽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재경·김민규 등이 최경주재단 꿈나무 출신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사회 꿈나무를 위한 나눔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인천 영종도 어린이를 위한 '스카이72 꿈키움캠프'는 예약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 수준 높은 문화·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이 캠프는 초기 '어린이 영어캠프', '어린이 CEO 캠프'를 거치며 현재의 형태로 발전했다. 겨울방학 기간 영종·용유 지역 초·중·고등학생(4~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5일간 통학형 캠프로 운영하는데, 국내 주요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멘티 학생들의 진로 발달과 인성, 학습 역량 등 종합적인 성장을 돕는 방식이다. 스카이72는 수많은 골퍼와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함께 나누며 성장하겠다는 첫 다짐을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스카이72의 나눔 철학은 앞으로도 굳건히 계속될 것이다. 🍀

# 기업 사회 공헌의 새 역사를 쓴 나눔명문기업



지난 2월 25일 (주)코젠바이오텍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이로써 사랑의열매 중견·중소기업 고액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은 200번째 회원을 맞이했다. 200호 달성을 기념하며, 그간 나눔명문기업이 남긴 의미 있는 발자취를 되짚어본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과 (주)코젠바이오텍 백묘아 총괄부사장

## 나눔으로 '사회백신'을 만드는 (주)코젠바이오텍

(주)코젠바이오텍은 2000년에 설립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국내 최초 코로나 19 진단 키트 및 오미كرون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특히 PCR(유전자증폭) 진단 키트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19 오미كرون 변이를 1시간 만에 판별해 전국 방역 현장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의 80~90%가 20·30대 청년 세대로 구성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인 만큼 평소 코로나19 장

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를 위한 복지사업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주)코젠바이오텍은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하는 만 18세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지난 2월 25일 (주)코젠바이오텍 백묘아 총괄부사장과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이 함께한 가운데 나눔명문기업 200호 탄생을 알리는 가입식이 열렸다. 백묘아 총괄부사장은 "코로나19 진단 키트 판매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가입하게 됐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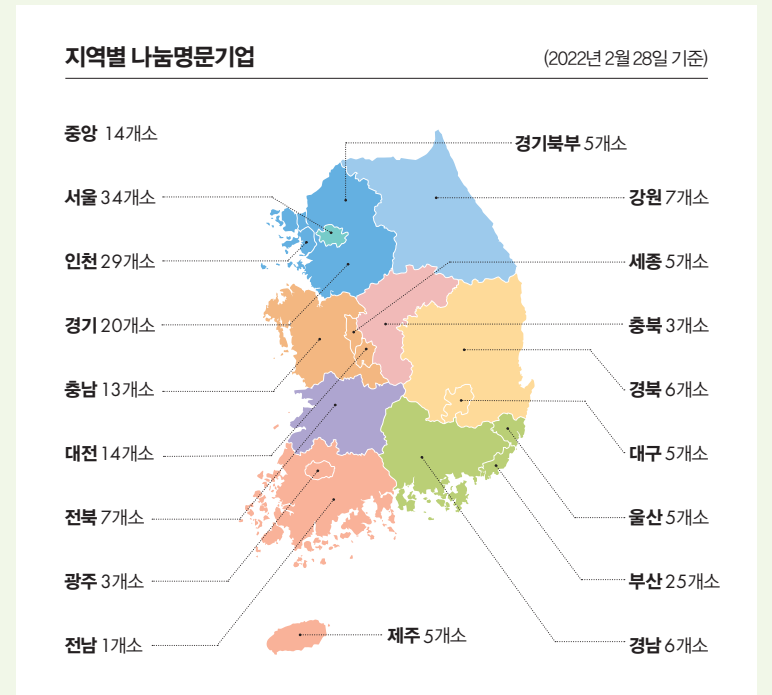
"앞으로 나눔명문기업 200호로서 그 가치를 빛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방역에 공헌한 데 이어 이번 기부로 이웃을 위한 사회백신을 만드는 데 일조한 (주)코젠바이오텍에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나눔명문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새로운 나눔 모델 제시한 나눔명문기업

2019년 6월 대한민국 나눔문화를 이끌고, 기업 사회 공헌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자 '나눔명문기업'이 출범했다. 같은 해 9월 전국 각 지회를 대표해 15개 기업이 나눔명문기업 1호로 공동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서도 3년 만에 200호 회원을 맞이한 것. (주)부산은행, 인천항만공사, (주)퍼시스 등이 동참했으며 누적 기부 약정 금액은 약 285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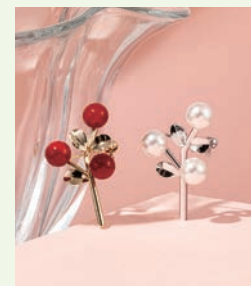


“매장 직원들이 나눔명문기업 현판을 걸고 근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나눔명문기업 80호 (주)인동FN 박경선 차장

“제가 직접 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사에서 몸담고 일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과 애사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인천 나눔명문기업 8호 인천택주 엄기옥 과장



**나눔명문기업 55호 (주)훈** 브랜드 미니골드를 운영하는 (주)훈은 2020년 10월 사랑의열매 첫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협약을 체결했다. 사랑의열매를 활용한 러브체리쉬 컬렉션을 선보이며 다양한 액세서리를 출시했고,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기부한 것. 컬래버레이션 협약과 동시에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따뜻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나눔명문기업 100호 (주)퍼시스** 사무 가구 제조 전문 기업 (주)퍼시스는 지난해 3월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또한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에 도전하는 지숙의 '착한오지라퍼' 콘텐츠에도 참여하는 등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나눔명문기업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 중앙 360호



**정윤호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작은 마음이지만 많은 분께 따뜻한 나눔이 전해지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해지길 소망합니다.”

### 중앙 361호



**김충한 (주)한국이앤엑스 회장**

“사랑의열매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서울 355호



**김지현 엑스트윈 대표**

“나눔이란 어려운 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서울 356호



**윤홍**

“아너 소사이어티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꿈꿉니다.”

### 서울 357호



**김태준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나눔은 희망을 나누는 일입니다.”

### 부산 250호



**김민지 (주)브이드림 대표이사**

“나눔은 모두가 더 풍성해지는 길입니다.”

### 부산 252호



**박민수 경남시멘트 화물 대표**

“나눔은 행복한 사랑입니다.”

### 부산 253호



**김병철 (주)에이비엠 회장**

“나눔은 이웃 행복의 마중물입니다.”

### 부산 254호



**박철우 (주)효산개발 대표이사**

“나눔은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 대구 190호



**제성욱 (주)프로에프에스 대표이사**

“저의 아너 가입이 나눔 실천을 고민하는 분에게 울림으로 다가가 대구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많이 탄생했으면 합니다.”

### 대구 199호



**이인호 정화실업(주) 대표이사**

“나눔수록 행복이 배가됨을 알기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 대구 200호·202호



**박무근·김수금 미광전업(주)대표이사**

“성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에게 잘 전달해주기를 바랍니다.”

### 인천 163호



**박연자 하나로휘트니스힐링교육센터 대표**

“저의 작은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 경기 282호



**양승일 스타플랜 대표**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경기 283호



**이유영 유구엔지니어링(주) 회장**

“남을 돕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기쁨입니다. 나눔을 함께 하는 선배님들과의 만남에 기대가 큼니다.”

### 충북 65호



**박경춘**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 전북 83호



**정해경**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북 84호



**김재윤**

“나눔으로 희망이 더 커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제주 128호



**좌운선**

“기부는 그냥 기부입니다.”

**강원 양만호 (주)고려산업 대표이사**  
**경북 권종미 권진치과의원 대표원장, 익명,**  
**김홍탁 조일산업(주) 대표이사**

중앙회



**지니뮤직, 가수 김준수(XIA)와 함께 1,000만 원 기부**  
 지니뮤직(대표 박현진)에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의 이름으로 사랑의열매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니뮤직은 올해 초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와 공동으로 '가장 기대되는 호랑이띠 아티스트 선발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약 30만 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프로모션에서 김준수가 1위를 차지해 함께 기부를 하게 됐다. 이번 기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재난 취약 가정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로 데뷔 19년 차인 김준수는 가수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지니뮤직은 2019년부터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올해를 빛낼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티스트와 함께 기부하고 있다. 2019년에 뉴이스트 황민현, 2020년에 워너원 김재환, 2021년에 방탄소년단 정국이 1위를 차지해 사랑의열매에 함께 기부금을 전달했다.

**'큰별쌤' 최태성 강사,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위촉**

사랑의열매는 이투스교육과 EBS 등에서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는 별별한국사 연구소 최태성 소장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난 3월 30일 위촉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으로 가입한 최태성 강사는 최근 강원·경북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유지하는 학생들을 위해 20년 넘게 EBS 무료 강의를 진행하는 등 꾸준히 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다. 위촉식에서 최태성 강사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며, 한국사를 공부하는 전국의 모든 별님(수험생)들과 함께 재능 기부를 포함해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누적 수강생 5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사 1타 강사로 활약하는 최태성 강사의 이번 홍보대사 위촉이 나눔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주연진·고민지 모녀, 나눔리더 동반 가입**  
 서울 사랑의열매에 가족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아버지 지성디앤알 고성훈 대표는 착한가게 가입으로 기부를 시작했으며, 그의 권유로 엄마 주연진 씨와 자녀 고민지 양이 나눔리더에 가입해 가족 전체가 기부에 동참하게 된 것. 특히 고민지 양은 용돈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씨앤씨, 청년 지원 사업 후원**  
 온라인 기반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씨앤씨(대표 심재원)가 서울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29호로 가입했다. 성금은 고립 청년 지원 사업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업 후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심재원 대표는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을 청년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어 기부에 참여했다"며 "나눔명문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선보공업(주)·선보유니텍(주), 아동복지시설 설치 지원**  
 선보공업(주)과 선보유니텍(주)(회장 최금식)이 지난 3월 17일 해운대 '반어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해운대 지역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성금 9,000만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 전달했다. 성금은 반어 지역 내 초등학교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화장실 개·보수에 2,000만 원,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에 7,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유니테크노 임직원, 동해안 산불 피해 돕기 참여**  
 (주)유니테크노(대표이사 이좌영)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강릉과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임직원이 함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좌영 대표이사는 "피해가 빨리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



**(주)리만코리아, 한부모 및 미혼모 여성 위한 화장품 전달**  
 올해로 창립 4주년을 맞은 (주)리만코리아(대표이사 김경중)가 자사 브랜드인 보타랩 화장품 400여 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화장품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대구지회를 통해 한부모 및 미혼모 여성 400명에게 전달했다. 김경중 대표이사는 “한부모 및 미혼모 여성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주), 산불 피해 구호 성금 2억 원 쾌척**  
 아이에스동서(주)(회장 권혁운)가 대규모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구호 물품과 성금 2억 원을 대구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산불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본 권혁운 회장이 재난 복구를 위한 기부 동참 의사를 직접 밝혔으며,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사회 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했다.

인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나눔명문기업 가입**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대표이사 홍창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 산업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로써 인천 31호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홍창의 대표이사는 “물류 산업계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상생 발전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주)다나라트레이딩, 푸드뱅크에 1,590만 원 상당 과자 기탁**  
 무역·운송 알선 전문 회사인 (주)다나라트레이딩이 푸드뱅크 이용자를 위한 과자 5,604개를 전달했다. 1,590만 원 상당의 과자는 인천광역시푸드뱅크를 통해 관내 지역 마켓 이용자에게 지원했다. 지난해 8월에도 계절 가전 200대를 지원한 바 있는 (주)다나라트레이딩의 최인걸 이사는 “기업 운영뿐 아니라 사회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보광종합건설,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보광종합건설이 최근 강원·경북 지역 등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원을 위해 광주 사랑의열매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 3월 15일 열린 전달식에서 보광종합건설 박수범 이사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길 바란다”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화재 진압 담당자들의 안전을 기원했다.



**광주 시민의 따뜻한 성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광주 사랑의열매가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13대를 지원했다. 차량 지원 사업을 공모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3곳을 선정하고, 광주 시민이 모은 성금 총 3억 7,000여만 원을 차량 구입에 사용했다. 지난 2월 22일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선정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진행했다.

대전



**로쏘(주)성심당, 나눔빵 캠페인 협약 체결**  
 지난 3월 2일 대전 지역 대표 기업 로쏘(주)성심당(대표 임영진)이 대전 사랑의열매와 '나눔빵' 캠페인 업무 협약식을 갖고, 나눔 홍보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캠페인은 성심당의 빵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넣는 '나눔 픽'을 꽃아 시민에게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 고자 마련했다. 임영진 대표는 “고객님들이 나눔에 대해 잠깐이나마 생각해볼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주)유토개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성금 기탁**  
 (주)유토개발(대표 임종인)이 대전 사랑의열매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임종인 대표는 “산불로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이웃을 보며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피해 주민께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유토개발은 2021년 대전 나눔명문기업 9호에 가입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특수 차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울산



**학해장학회, 저소득 학생 장학금 후원**

학해장학회가 저소득 학생을 돕기 위한 장학금 1,700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1996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를 지원해온 학해장학회는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학비 지원 사업을 장학금 사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남구 지역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1,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올해는 동구 지역 중학생과 고등학생 2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산불 피해 지원 특별 모금**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with HERO 울산이 강원·경북 등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314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번 모금은 1억 원의 산불 구호 성금을 기부한 가수 임영웅과 뜻을 함께하고자 진행했다. 팬클럽은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작으나마 힘이 되고픈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전했다.

경기



**(주)금강퀴츠 김창길 대표이사,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주)금강퀴츠 김창길 대표이사가 경기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탁하며 경기 282호 아너 소사이어티로 가입했다. 성금은 도내 아동·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가입식에서 김창길 아너는 “나눔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사회적 고립가구 위한 지원 사업 펼쳐**

경기 사랑의열매가 2021년 기획 사업으로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회적 고립가구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숨어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연천군 왕징면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2호 착한일터 가입**

연천군 왕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남상규)가 연천군 2호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왕징면 전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을 위해 적은 액수라도 나눔을 실천해보자는 뜻에서 가입을 결정했다. 성금은 왕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남상규 면장은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왕징면의 가게, 일터, 가정까지 나눔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스크린, 승강기용 향균 필름 2,000매 기부**

지난 3월 3일 키스크린(대표 진현국)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승강기용 향균 필름 2,000매를 기부했다. 파주시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진현국 대표와 최충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진현국 대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향균 필름을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1,000만 원 상당의 향균 필름은 파주시 임대아파트 3만 2,400세대에 전달했다.

강원



**대한의사협회·강원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성금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000만 원,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가 1,000만 원,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중규)가 750만 원을 강원 사랑의열매에 산불 피해 지원 성금으로 기탁했다. 성금은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피해가 심각한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대학교 총동창회,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강원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필현)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한 ‘KNU with YOU 캠페인’의 일환으로 강원 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춘천시, 강릉시 등 강원도 내 10개 시군에 각각 100만 원씩 전달했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필현 회장은 “좋은 캠페인에 동참해 영광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충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착한일터 급여 나눔 동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이 충북 사랑의열매와 착한 일터 협약을 맺고 현판을 전달받았다.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을 이 어가고 있는 이웃에게 다소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임직원이 매월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일터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창원 원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눔으로 함께 이겨내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금강센테리움컨트리클럽(주), 나눔명문기업 가입**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금강센테리움컨트리클럽이 충북 나눔명문기업 3호로 가입했다. 금강센테리움컨트리클럽은 최근 2년간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총 1억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한 바 있다. 금강센테리움컨트리클럽 김중명 총지배인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나눔에 참여했다”며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착한가게 단체 가입으로 나눔 실천**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작은 섬마을 위도면에서 8곳의 착한가게가 단체 가입하며 전북 착한가게가 3,500호를 돌파했다. 이번에 가입한 착한가게는 섬마을횻집, 위도반점, 아리울, 그곳에가면, 그 래그집, 날마펜션, 위도빌리지펜션, 위도스케치 8개소다. 최병관 위도면장은 “기부자들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성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솔로 5기 출연자 이준호, 나눔리더 가입**  
 화제의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 5기에 '정수로 출연한 이준 호 씨가 출연료 100만 원을 전액 기부하며 전북 150호 나눔리더 로 가입했다. 이준호 나눔리더는 “이번 나눔리더 가입으로 지역 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저의 작은 실천이 전북도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우리 지역의 기 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남



**대전상공회의소, 희망드림 장학금 기탁**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가 충남 사랑의열매에 희망드림 장 학금 2,88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충남 8개 시군의 초·중·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회적 취약 계층 자녀 24명에게 월 10만 원 씩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정태희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 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싶다”며 “학생들이 어려 움을 극복하고 큰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식 예비역 대장,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부금 전달식**  
 김영식 예비역 대장(전 육군1야전군사령관)이 '위국헌신 전우사 랑기금'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영식 예비역 대장은 최근 결혼한 차남의 축의금 가운데 500만 원을 기금에 전하고, 자신이 공동 번역해 출간을 앞둔 <더 제네럴(가제)>의 번역료와 인세도 기금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제 기부를 계기로 다른 육군 가족들 이 나눔에 동참한다면 더 큰 행복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남



**2022년 복지현안우선지원 사업비 2억 원 배분**  
 전남 사랑의열매가 2022년 복지현안우선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 회복지시설과 기관 10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전달했다. 지난 1월 사업 공고 및 접수를 시작한 1차 복지현안우선지원 사업은 2월 심사를 거쳐 총 10개소를 선정했으며, 5월 2차 사업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개·보수, 섬 어 르신 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한다.



**여주시청,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기탁**  
 지난 3월 11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여주시 청이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 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으며, 성금은 여주시청 공무원 1,42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전달식에서 전남 사랑의 열매 노동일 회장은 “십시일반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군 산불 피해 긴급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나섰다. 한수원은 한울원전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에 1억 원을 전달했으며, 피해 지역에 텐트와 담요·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이재민을 위한 생활 가전제품과 급식 차량, 세탁 차량도 투입했다.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임직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 중이다.



울진군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한 온정의 손길

지난 3월 10일 경북도청에서 울진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대한의사협회가 1,000만 원, 경상북도의사회가 1,000만 원, 전라북도의사회가 750만 원, 대구시의사회가 1,000만 원, 경상북도 능금회가 2,000만 원, 경상북도 경북회가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복구를 돕고, 이재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경남



익명의 나눔 천사, 산불과 전쟁 종식 기원 성금 기탁

익명의 기부자가 강원·경북 산불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기원하며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성금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부자는 2017년부터 손 편지와 함께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보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이슈가 있을 때에도 손 편지와 성금을 모금함에 두고 간 바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4억 8,900여만 원에 달한다.



2022년 연합모금 매칭금 지원 사업 배분금 전달

지난 3월 15일 2022년 연합모금 매칭금 지원 사업 배분금 전달식이 열렸다. 해당 사업은 모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 및 단체가 사랑의열매와 협약을 맺고 함께 모금하며, 기관별 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사랑의열매가 추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협약 기관이 모금한 총 1억 8,118만 7,888원에 경남 사랑의열매가 5,385만 1,000원의 매칭금을 추가해 전달했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삼다수 나눔

지난 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가 2022년 삼다수 나눔 사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총 2억 원 상당의 삼다수 약 32만 병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삼다수 나눔 사업은 제주개발공사가 6년째 진행하고 있는 대표 사회 공헌 사업이다. 삼다수는 사회복지시설 약 670개소에 매월 지원하며, 공사 매입 임대주택 770여 가구에 연 2회 제공한다.



2022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전달

제주 사랑의열매가 2022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한 제주 사랑의열매 일자리 지원 사업의 전달식을 하고 총 8,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해 장애인 직업인 프라를 개선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2개 기관에 7,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세종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착한부서 가입식 실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가 착한부서에 동참해 지난 2월 23일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박이상 민간협력과장 등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매월 월급의 일정액을 기부해 도움이 필요한 세종시 이웃을 돕는다.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작은 변화의 바람이 희망의 태풍으로 세종 지역에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 보람초 양은성·은서 남매, 돼지 저금통 기탁

세종시 보람초등학교에 다니는 양은성, 양은서 남매가 세종 사랑의열매에 돼지 저금통을 기탁해 화제다.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기부를 결심한 남매의 저금통에는 404,230원이 들어 있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 저축한 것으로, 남매는 "불에 탄 검은 산이 푸른 모습을 되찾으면 그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편견과 차별 없는 그날을 위해**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42회를 맞이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언젠가는 장애인의 날이 단 하루에 그치는 기념일이 아닌,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한 1년 365일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새나라, 새일꾼  
 신입 직원 김예설 Yes, sir!  
 2화 - 임명식, 그리고 부서 배치



글-그림 오동진 다음 화에 계속...